

碩士學位論文

濟州 方言의 命令 話行 研究

지도교수 김 태 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강 남 국

2000년 8월

濟州 方言의 命令 話行 研究

지도교수 김 태 곤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6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제출자 강 남 국

강남국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0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濟州 方言의 命令 話行 研究

강 남 국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 교육 전공

지도교수 김 태 곤

종결어미에 따라 결정된 평서문과 의문문의 일부가 실제의 발화에서는 명령의 화행으로 나타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화용론에 근거하여 명령 화행의 범주를 설정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 2장에서 우선 전통 문법 이론에 근거하여 통사론의 입장에서 명령문의 범주를 확인하고, 명령문을 규정 짓는 명령형 종결어미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예시 발화로 투입하고자 하는 제주 방언의 명령문과 그 종결어미를 대비함으로써 제주 방언의 명령 화행을 분석하는 기초로 삼았다.

다음 화용론의 입장에서 국어의 일반적 문형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명령문에 청유문을 포함시켰다.)의 세 가지 유형으로 통합하였다. 이 문형 분류에 따라 John L. Austin과 J. R. Searle 등의 언어철학과 화행 이론을 토대로 평서문과 단언 화행, 의문문과 질문 화행, 명령문과 명령 화행으로 문형을 화행에 대응시켰다. 제주 방언의 문장 유형 역시 표준어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문형과 화행의 대응을 표준어와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이어서 명령 화행을 결정짓는 화수 행위에 대하여 요청 행위, 지시 행위, 청유 행위의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제 3장에서는 통사론적 문장의 유형 중, 실제 명령의 의미를 지닌 화행을 그 화수 행위의 직접성 여부에 따라 직접적 명령 화행과 우회적 명령 화행의 두 가지로 분류한 다음, 제주 방언의 현실적 발화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표준어의 발화 상황을 투입하였다.

직접적 명령 화행은 문법적 명령문과 청유문에 대응하는 화행으로서 명령형 종결어미의 통사적 특성과 명확한 명령 의미의 발화를 그 조건으로 삼았다. 이는

그 성격에 따라 명령형 종결어미가 이끄는 명령 화행, 청유형 종결어미에 의한 명령 화행, 종결 지사들 통한 명령 화행으로 분석하였다.

우회적 명령 화행은 단언 화행과 질문 화행 중, 명령으로 표현해야 할 화수 행위를 교체 활용한 분형으로 그 조건을 삼았다. 따라서 이를 질문 행위의 우회적 명령 화행과 단언 행위의 우회적 명령 화행으로 나누었다. 질문 행위의 우회적 명령 화행은 명령의 강도를 기준으로 강화된 명령을 위한 질문 행위와 완곡한 명령을 위한 질문 행위로, 단언 행위의 우회적 명령 화행은 청자의 인식 사실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 방언의 직접적 명령 화행은 표준어에 비하여 높임 종결어 유형이 적기 때문에 종결 전사로 그 역할을 대신하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드러났다. 우회적 명령 화행은 제주 방언과 표준어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없으며, 단언 행위에 비하여 질문 행위를 통한 명령 화행이 많았다. 특히 명령은 회자가 청자의 행동을 간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언 행위나 질문 행위를 통하여 회자의 명령 강도를 조절하는 우회적 명령 화행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행위 교체 반화가 분형 구분의 통사론적 한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화행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문형과 발화 상황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 문장 중심의 형식적 문법론에서 탈피하여 실질적 발화 행위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차 례

◇ 국문 요약

I. 서론	1
II. 명령문과 명령 화행의 범주	5
1. 명령문의 범주	5
2. 명령 화행의 범주	12
III. 명령 화행의 유형	24
1. 직접적 명령 화행	24
1.1 명령형에 따른 명령 화행	26
1.1.1 [-라]	26
1.1.2 [-아/어]	28
1.1.3 [-주]	30
1.1.4 [-심]	31
1.1.5 [-버서]	32
1.2 청유형에 따른 명령 화행	33
1.2.1 [-게]	33
1.2.2 [-주]	34
1.2.3 [-라]	36
1.2.4 [-버주]	37
1.3 종결 첨사에 따른 명령 화행	38
1.3.1 [~마씀]	39
1.3.2 [~게]	41
1.3.3 [~이], [~양]	42
2. 우회적 명령 화행	46
2.1 질문 행위의 명령 화행	47
2.1.1 강화된 명령을 위한 질문 행위	48
2.1.2 완곡한 명령을 위한 질문 행위	50
2.2 단언 행위의 명령 화행	56
IV. 결론	61
◇ 참고 문헌	65
◇ Abstract	

표 차 례

[표. 1] 국어 문형에 따른 종결어미 유형	8
[표. 2] 명령형 종결어미의 유형과 성격	9
[표. 3] 제주 방언의 문형에 따른 종결어미 유형	10
[표. 4] 제주 방언과 표준어의 명령 화행 종결어 비교	44

I . 서론

말이란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음성적 전달 행위이다. 그런데 이 음성적 표출 행위는 본질적으로 청자를 전제하게 되며,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요구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우선 격식 없는 실생활의 대화 형태가 나타나며, 이어 사회적 기능에 의해 만들어진 특정한 사용 규칙을 지닌 담화로 발전한다.¹⁾ 더 나아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의 방법이 문자화된 말이거나 글로 문법화 되었을 때 서법이 성립된다.

지금까지 문장 형태를 가늠하는 대상이 197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통사론의 입장에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에 오면서 의미론, 화용론의 입장으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국어 문장에 대한 연구 방법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 통사론 위주의 문법론보다 발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미론과 화용론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실 언어 사용 기능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언어를 사용하는 정상적 상호 작용의 상황에서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언어의 이런 기능적 측면을 연구하기 위하여 발화 상황을 가장 일차적인 정보의 원천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언어 행위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희자²⁾는 “기존의 문법적 범주에 속하는 서법에 의지하여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화자와 청자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발화의 시간, 장소를 비롯한 상황 맥락 등, 언어의 외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담화와 대화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국어의 전통 문법에서는 서법의 갈래를 일반적으로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등 주로 종결어미에 따라 분류해 왔다. 또한 그 종결어미를 분석한 결과, 국어의 문장은 평서형 또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명령형 또는 청유형 종결어미에 비하여 그 종류가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본문Ⅱ-1 “명령문의 범주” 참조)

그러나 실생활에 사용하는 명령 발화 행위는 서법과 달리 그 비중에 차이가 나

1) Jacob L. Mey(1993), *Pragmatics*, 이성범 역(1996), 한신문화사, p.192.

2) 정희자(1999), 「담화와 문법」, 한신문화사, p.3.

지 않는다. 특히 수많은 사람과 만나며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특정한 화자와 청자간의 발화 행위에 있어서 그 발화의 시간이 짧아졌으며, 특히 요점만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식 때문에 명령 화행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부 사이에 나누어지는 대화, 학교에 나가는 아이들에게 던지는 어머니의 이야기, 직장에서 동료간에 업무 관계로 나누는 이야기 등, 바쁜 일과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 행위들에 명령의 행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점이다.

물론 이러한 文型과 話行의 輕重의 차이를 세기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특정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실분과 실명만으로 이어지는 발화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논리는 대치될 수 있다. 그러나 화자와 청자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발화 시간, 상소를 비롯한 상황 맥락 등,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발생하는 화행 유형의 빈도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개, 또는 몇 개의 메시지가 과연 어떠한 유형인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하는 화자가 청자에게 그 물건의 품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는 중에 나타나는 문형은 주로 평서문이 많다. 반대로 청자가 '그 물건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주로 의문문을 사용하겠지만, 그 상황에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 물건이 매우 좋다'라는 평서문과 '이 물건을 사겠느냐' 하는 의문문 이외에 '이 물건을 사라' 하는 명령형의 문형이 서로 상존할 것이다. 따라서 문장에 있어 첫째의 반문으로는 명령형 종결어미가 평서형, 의문형 종결어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다는 당위성을 입증할 수가 없다.

둘째, 서법은 문장에 의한 언어 행위요, 화행은 말에 의한 언어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상대 비교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긋날 수가 있다. 그러나, 글은 말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말에 의하여 정착된 것이다. 또한 발화 행위에 사용하는 지시 행위의 표현 빈도만큼 문장에 사용되는 명령형 종결어미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법에 사용되는 명령형 종결어미의 종류가 미비하다는 것은 문장 외적 의미의 해석이 없이는 설명하기 곤란하다.

결국 서법의 명령문은 지금까지 전통 문법의 관례에 따라 종결어미의 형태를 통하여 그 유형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명령 발화 행위와 비교해 볼 때, 전통 문법에서는 발화 상황의 의미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장 종결어미의 형태 중 실제 사용되는 상당수가 화행에서 명령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데 연구의 필요성을 두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통사적 문법론에서 의미하는 명령문과 실제 발화되는 명령 행위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명령 화행의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화자와 청자의 실제 발화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언어 사회에서 사용하는 제주도 방언의 실제 발화 상황을 표준어와 연계하여 투입함으로써, 명령 화행의 범주에 따른 유형 분류가 가능한가 검증하며, 이를 통하여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명령 화행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또 하나의 목적을 두었다.

통사적 명령문과 명령 화행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1. 전통 문법 이론에 근거하여 통사론적 명령문의 범주를 설정하고, 명령문을 규정 짓는 명령형 종결어미의 유형과 함께, 예시 발화로 투입하고자 하는 제주 방언의 명령문과 그 종결어미를 대비 분석하고자 한다.

2. John L. Austin과 J. R. Searle 등의 언어철학과 화용론에 근거하여 화행의 유형을 추출하고, 그 중 하나인 명령 화행의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실제 발화 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설정된 명령 화행의 범주에 따라 제주 방언의 현실적 발화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표준어의 발화 상황을 투입함으로써 통사론적 문장의 유형 중, 실제 명령의 의미를 지닌 화행을 특성 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직관에 따른 수행 발화의 측면에서만 명령 화행을 분석하는 것은 박영준³⁾과 고성환⁴⁾의 지적과 같이 그 다양성 때문에 문제가 따를 수 있다.

3) 박영준(1991), “국어 명령문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p.12.

4) 고성환(1996), “현대 국어 명령문에 대한 의미·화용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p.8.

첫째, 화행의 발화 조건과 상황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명령 화행의 객관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며,

둘째, 기존의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하는 통사적 측면의 연구가 명령문에 대한 유형 분류를 비교적 명백하게 하는 데 비하여, 명령 화행에 대한 연구는 동일한 발화에 대한 상황적 다양성 때문에 유형 분류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문을 화행의 입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명령문이 평서문과 의문문에 비하여 그 화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며 문법론의 측면에서만 파악해서는 명령 화행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문제점과 당위성에 유념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1. 문법론에서 요구하는 문장이 명확한 유형 분류에 있는 만큼, 화행 상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명령 행위를 추출하여 채택함으로써 그 명령 화행의 범주를 제한한다.

2. 문장 종결어미 중, 문장이나 화행 모뉴에서 명확하게 명령의 의미를 지니는 발화에 대하여 그 화행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문장 유형으로는 청유문이나 평서문, 또는 의문문에 속하나 화행적 측면으로 보아 명확하게 명령에 해당하는 발화에 대하여 그 발화 상황과 조건을 밝힌다.

이 논문의 전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의 개념을 설정한다.

‘發話 行爲’는 문법적 표현인 文章 行爲에 대응하여 담화 때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言語 行爲 자체를 뜻한다.

‘話行’⁵⁾은 ‘發話 行爲’를 줄여 만든 용어이나, 여기에서는 발화 행위의 話用論的 類型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이는 문법론에서의 文型에 대응하는 發話 行爲의 類型을 뜻한다.

‘話隨 行爲’는 發話 隨伴 行爲의 줄임말로, 발화 행위에 따르는 話者의 陳述, 命令, 約束 등 話行의 하위 구성 요소인 種概念으로 사용한다.

5) John L. Austin(1975), *How to do things with words*에서 사용한 ‘speech act’를 김영진(1992)과 상식진(1997)은 ‘화행’(話行)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Ⅱ. 명령문과 명령 화행의 범주

화행에서 명령의 개념을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하여 우선 통사론에서는 명령문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 짓고 있으며, 그 결과 국어와 제주도 방언의 명령문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명령문에 대한 판단이 화용론의 명령 화행과는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서두에서 제시했던 연구의 범위에 합당한 명령 화행의 범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1. 명령문의 범주

명령문의 범주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선 명령문에 대응하는 다른 문장 유형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를 밝히고,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통사론적 문법론에서는 명령문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규명해야 한다.

1.1 국어 명령문의 범주

일반적으로 국어 문법론에서는 종결어미에 의해 문장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물론 종결어미의 형태적 종류에 따라 단순히 그 유형을 가름하기도 하지만, 종결어미의 의미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누는 연구도 있었다.

이러한 문장 유형에 대한 분류는 4분법부터 7분법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1) 4분법의 대표적인 예로 최현배는 배품월, 시킴월, 물음월, 피임월의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⁶⁾ 그와 같은 견해로 장석진과 한길 등을 들 수 있다.⁷⁾ 4분법은

6) 최현배(1971), 「우리말본」 네 번째 고침 펴냄, 정음사, pp.827~841.

7) 장석진(1997)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한길(1991)은 서술법, 물음법, 피임법, 시킴법으로 그 용어만 달리 하였다.

주로 문법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한 것으로 그 용어 자체만 서로 차이가 있을 뿐 문장 유형 분류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5분법은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칭유형, 감탄형의 유형이다. 이 분류는 김석득, 김태근, 노대규 등은 물론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대부분에서 채택할 만큼 일반화되어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⁸⁾ 이 분류는 위 4분법의 분류 항목에 감탄형을 첨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노대규⁹⁾는 감탄문이 다른 유형과는 달리 독특한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3) 6분법은 이희승¹⁰⁾으로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칭유형, 감탄형, 응락형을 들고 있다.

4) 고영근은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정유형, 감탄형, 약속형, 허락형의 7분법을 제시하였다.¹¹⁾

이 중, 위 2)·3)·4)항의 감탄문에 대하여, 2)항에서 그 필요성을 언급한 노대규와는 달리 최현배는 느낌의 의미 표현은 배품꼴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그 종결어미 활용의 불비성을 들어 느낌꼴을 따로 서술할 필요 없이 배품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¹²⁾, 한길도 마찬가지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위 4)항 7분법 분류 중, 약속문은 정자에게 화자 자신의 의지를 단언으로써 약속한다는 점에서 평서문과 다를 바 없다. 또한 허락문 역시 고성환¹³⁾의 지

8) 김석득(1966), "V류 어의 내부 구성 요소 분석," 『인문과학』(연세대학교) 14·15, pp.85~123.

김태근 외(1998), 『한국어의 역사』, 내한교과서.

노대규(1982), "국어의 감탄문 분류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9) 노대규(1982), 위의 글, pp.15~16.

10) 이희승(1970), 『새 문법』, 일조각.

11) 고영근(1973)은 7가지로 제시하였다가, 남기심과 공동 편찬한 『표준어문법론』(1993, 개정판, 탑출판사)에서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정유형, 감탄형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2) 최현배(1971), 앞의 책, pp.265~266.

13) 고성환(1996:126)은 '허락문은 행위 수행자의 행위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의도가 명시될 때 사용되는 것이지만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결국 화자라는 것과 허락형 어미의 분포가 공손법 등분 상으로 몇몇 등급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 또한 한정되어 실현되는 허락형 어미조차, 일반적으로 허락형 어미와 일반 명령형 어미가 화자의 정감적인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일반 명령형 어미로 쉽게 교체되어 쓰인다는 것, 그리고 허락문은 일반적인 명령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제약음 함께 한다는 것을 들어 독립적인 문장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파악하고 있다.

적대로 명령문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감탄문을 평서문 속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4분법 또는 5분법의 일반 유형 분류를 일반화된 문장 유형으로 채택할 수 있다.¹⁴⁾ 또한 어느 분류 체계에도 명령문은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또는 감탄문과 함께 문법적인 문장 유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분석과는 달리 종결어미의 통사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그 의미와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김민수와 박영준은 서술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으로 나누어 청유문을 명령문 속에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다.¹⁵⁾ 청유문은 화자가 이미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은 행동화를 청자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요청하는 성격의 문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류도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뒷장에서 언급하겠지만 화행 분류에 있어서는 이런 입장이 당연시된다. 그러나 문형 분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이 종결어미의 용법에 있으므로 명령문과 청유문을 똑 같은 범주로 파악하는 것은 통사론적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고성환도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¹⁶⁾

이와 같은 분류 양상의 근거를 볼 때, 종결어미의 의미만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그 유형이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통사론적 측면과 문장 전체의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그 유형이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장 전체의 의미를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국어의 문형을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되, 청유형은 넓은 의미의 명령형으로 분류한다. 이와 같이 청유형은 명령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문법의 명령문은 종결어미가 지니는 명령적 의미와 함께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모든 언어적 표현들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면, 문장 유형 분류 방법 중 감탄문을 평서문 속에 포함시킨 4분법에 따르

14) 감탄문을 평서문에 포함시켜야 하느냐의 여부는 명령문의 범주 설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결론을 유보한다.

15) 김민수(1975), 「국어문법론」, 일조각.
박영준(1991), 앞의 글.

16) 고성환(1996:126)은 '청유문이 상대방에게 행동 수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의 명령문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적되어 왔듯이 형태·통사적인 측면에서는 명령문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명령문과는 다른 독립적인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면 명령형 종결어미와 청유형 종결어미 분포가 다른 문장 유형의 종결어미에 비하여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아래의 [표. 1]을 참고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표. 1] 국어 문형에 따른 종결어미 유형¹⁷⁾

구분	예사 낮춤	예사 높임	아주 낮춤	아주 높임	높낮이 없음	어미 수
평서형	{-르세} {-으이} {네} '-는다네'	{-오} {-구리} '-는다오' '-습다다' '-으리다'	{-는다} {-올라} {-올라} {-오마} {-는구나} '-는던다' '-노니라' '-도다' {-노라} {-누나} '-올진서' '-올지니라'	'-습니다' '-는답니다' '-나이다' '-오이다' '-올시다'	{-다}	27
의문형	{-는가} {-나}	{-오} '-유디까' '-으리까'	{-느냐} {-니} '-으렀다' '-음소냐'	'-습니까' '-나이까' '-오이까'	'-는답' '-으랴'	14
청유형	{-세}	'-읍시다'	{-자}			3
명령형	{-게}	{-오} {-구려}	{-아라} {으려무나} '-으렀다' '-을시어나'	'-으십시오' '-으소서'	{-으랴}	10

※ 위 자료의 내용 중에 '어미 수'는 필요에 따라 연구자가 임의로 합산한 숫자임.

위의 갈래에 따르면 총 54개의 종결어미 중, 명령형 종결어미 10개와 청유형 종결어미 3개가 나타나 문장 용례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용 빈도를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종결어미 숫자로만 단순 비교를 한다면 평서형 종결어미와 의문형 종결어미에 비하여 청유형·명령형 종결어미의 수는 상당히 적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령형 종결어미만 놓고 볼 때, 박영준은 청유형 종결어미까지 명령형에 포함시켜 다음 [표. 2]와 같이 16개를 들고 있다.

17) 한실(1991), 「국어종결어미 연구」, 상원대학교 출판부.

[표. 2] 명령형 종결어미의 유형과 성격¹⁸⁾

'시' 선행 여부	기본형	등급	표현	타 서법
'시' 선행하는 종결어미	-(으)라	1≥		×
	-어	1≥		서술, 의문
	-지	1≥		서술, 의문
	-게	2≥		서술, 의문
	-(으)오	3≥		서술, 의문
	-소	3≥		서술
	-구려	3≥	구어체	서술
	-(으)비시다	3≤		×
	-(으)소서	4<		×
'시' 선행 않는 종결어미	-어라	1≥		×
	-(으)렴	1≥	구어체	감탄
	-(으)르것	1≥	문어체	×
	-(으)르지어다	1>	문어체	×
	-(으)렀다	1>	구어체	×
	-자	1≥		×
	-세	2≥		×

위의 목록은 명령형 종결어미가 내포하고 있는 명령의 강도를 등급화 시키고 있는가 하면, 문어체와 구어체 중 어느 한쪽으로만 사용하는 예를 제시했으며, 이 종결어미들 중 다른 서법에 사용하는 용례도 분석하고 있다. 위의 분석은 이 연구가 지향하는 화행적 측면에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결어에 의한 명령 화행 분석에 있어 표준어의 전형으로 삼고자 한다.

1.2 제주 방언 명령문의 범주

제주 방언의 문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김영돈, 김형규, 이송녕, 성낙수 등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의 4분법을 택하고 있다.¹⁹⁾ 최학규는 평서법,

18) 박영준(1991), 앞의 글, p.36.

19) 김영돈(1956)은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으로, 김형규(1974)는 의문, 오락, 명령, 청유로, 이송녕(1985)은 서술형, 의문형, 권유형, 명령형으로, 성낙수(1992)는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의문법, 명령법, 칭유법, 감탄법의 5분법으로 나누어 제주 방언의 서법을 분류했다²⁰⁾. 그런데 특히하게 현평효²¹⁾는 문장 내용에 대한 화사의 심지 태도가 서술어의 종결어미에 따라 표현된다고 보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의 3분법을 택하여 종결어미를 분류했다. 여기에서 칭유법은 명령법 속에 포함시켜 분석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제주 방언의 문장 유형 역시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 표준어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 방언의 문법적 명령문은 그 개념이나 범주를 국어의 명령문과 같이 칭유문을 포함시켜 규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현평효는 제주 방언의 종결어미를 다음 [표. 3]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표. 3] 제주 방언의 문형에 따른 종결어미 유형²²⁾

구분	홀라체	홀여체	홀서체	어미 수
평서형	{-다} '-적' '-라' '-아/어' '-에' '-여' '-니'	{-어} '-게' '-걸' '-게' '-고' '-라' '-우' '-컬'	{-디} '-세' '-우'	18
의문형	{-냐} '-나' '-다' '-디' '-아' '-래'	{-가} '-고' '-아/어' '-니'	{-가}	11
명령형	{-라}	{-이/어} '-게' '-자' '-취' '-십'	{-디시}	7

※ 위 자료의 내용 중에 '어미 수'는 필요에 따라 연구자가 임의로 합산한 숫자임.

이 분류는 명령형 종결어미 속에 칭유형 종결어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총 35개의 종결어미 중, 명령형 종결어미는 7개이다. 국어의 종결어미와 마찬가지로 문형에 따른 종결어미를 단순 비교할 때, 평서형과 의문형에 비하여 명령형 종결어미의 수가 국어의 경우보다 오히려 그 수가 적다고 하겠다.

20) 최화규(1989), "제주방언의 서법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21) 현평효(1974), "제주도 방언의 정농사 어미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2) 현평효(1974), 위의 문.

특히 명령형·청유형 종결어미의 숫자를 놓고 비교할 때, 표준어에 비하여 제주 방언의 명령형·청유형 종결어미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서는 명령형 종결어미 '-라', '-아/어', '-주', '-심', '-ㅂ서'와 청유형 종결어미 '-라', '-주', '-게', '-ㅂ주'를 합한 9개로 분류하고자 하는데, 이는 표준어의 명령형·청유형 종결어미와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은 높임 종결어미 숫자에 있다. 제주 방언에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의 쓰임이 없기 때문에 표준어에 비하여 그 활용도가 현저히 뒤떨어진다. 따라서 종결어미에 따른 명령 화행은 표준어의 화행과 제주 방언의 화행 사이에 높임법에서 특정한 차이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명령 화행의 범주

국어의 명령문은 종결어미의 형태적 특성에 따라 명령적 의미를 나타내는 문형을 일컫는다. 이처럼 종결어미에만 의지하여 명령 문형을 확정함으로써 명령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시는 않았지만 화자의 발화 의도로 보아 분명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형에 대한 해석이 명확성을 잃게 된다. 이와 같은 수행 발화의 의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문형에 관계없이 화자의 명령 의도가 분명한 발화 행위를 명령 화행이라 한다. 명령 화행의 범주를 정립하기 위하여, 우선 문형과 화수행위의 관계를 분석하여 명령 화행에 대응하는 문형을 확정 짓고, 명령 화행이 그에 대응하지 않는 다른 문형과의 교체 상황과 그 원인을 고찰한 후, 명령 화행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2.1 화용론의 입장에서 본 영어권의 문형과 명령 화행

J. L. Austin은 화행의 구성을發話基礎行爲(locutionary act), 發話隨伴行爲(illocutionary act), 發話效果行爲(perlocutionary act)의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²³⁾ 發話基礎行爲²⁴⁾는 발화에서 그 음성과 형태와 의미를 결정하는 단계이며, 發話隨伴行爲는 발화 행위에 따르는 화자의 진술, 명령, 약속 등의 의도적 단계이며, 發話效果行爲는 발화로 인해 청자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의 단계를 뜻한다.

발화 기초 행위는 앞에서 파악했던 문법론에서 다른 분야에 해당하고, 두 번째의 발화 수반 행위의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 화용론의 분야에 해당한다. 따라서 話行은 이 발화 수반 행위의 단계를 문장으로 실재화하여 표현한 개념이다. 또한 話行과 發話隨伴行爲의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發話隨伴行爲는 서론에서 규정한 바 있는 ‘話隨 行爲’로 줄여 사용한다.

23) John L. Austin(197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김영진 역(1992), 서광사, pp.123~134.

24) ‘locutionary act’에 대하여 김영신(위의 책:123~134)은 ‘發話行爲’로 번역하였고, 임지량(1981:349)은 ‘言表行爲’로 번역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용어의 혼란을 막고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發話基礎行爲’로 번역하여 사용하겠다.

Austin과 Searle, Devlin은 화수 행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Austin은 화수 행위를 화수 동사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判定行爲(verdictives), 行 事行爲(exercitives), 言約行爲(commisives), 行態行爲(behavatives), 平敘行爲 (expositives)로 분류했으나, Searle은 통사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행위에 초 점을 맞추어 분류 기준을 제시한 다음 다섯 개의 화행을 제시하고 있다.²⁵⁾

斷言行爲(assertives) : boast, complain, conclude, describe, predict, state

要請行爲(directives) : advise, beg, command, order, plead, request

言約行爲(commisives) : bet, consent, guarantee, intend, promise, swear

情表行爲(expressives) : apologize, condole, congratulate, deplore, thank, welcome

宣言行爲(declarations) : appoint, declare, excommunicate, fire, pronounce, resign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다 화용론 쪽에 접근한다는 입장 아래 Searle이 제시 한 화수 행위의 분류 기준을 이론적 근거로 채택하고자 한다.

Searle의 화수 행위 분류를 근거로 Devlin은 화행과 문형의 문법화 현상에 대 하여 화수 행위와 문형의 대응을 얻고자 다음과 같이 상황의미론적인 해석을 하 고 있다.²⁶⁾

“단언 행위는 청자가 화자의 단언에 의해 전달된 정보를 갖게 되는 화행이고, 요청 행위는 청자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의향을 표시하는 화행이며, 정표 행위는 청자가 화자의 정 서적 심리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는 점에서 단언 행위와 비슷하며, 언약 행위는 화 자가 어떤 행위를 할 의향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화행이고, 선언 행위는 사태가 발화자가 선언하는 대로 행해짐을 나타내는 화행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단언 행위와 정표 행위는 단언 화행으로 묶어 평서문에 대 응시켰고, 지시 행위는 요청 화행으로 명령문에, 언약 행위와 선언 행위는 문장화 에 따라 평서문 또는 감탄문 등에 대응시켰다. 그러면서 의문문에 대응하는 화행

25) 장석진(1997), 「통합문법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p.77~85.

26) 장석진(1997), 위의 책, pp.134~136.

은 요청 화행의 일종으로 처리하여 그에 대응하는 화수 행위와 화행을 무시하고 있다.

그 이론에 따라 화수 행위와 문형을 대응하여 보면,

단언 행위	—	평서문
요청 행위	—	명령문
요청 행위의 일종	—	의문문

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국어 종결어미가 그 자체의 형태적 변화를 통해 화행적 의미를 달리 하는 데 비하여, 영어 동사는 본질적으로 화행적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화수 행위의 분류를 그대로 우리 국어에 도입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영어의 직접 의문문에서는 화수 행위의 동사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간접 의문화하여 다른 다섯 가지의 화수 행위로 편입해야 하는 까닭에 의문문도 요청 행위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종결어미 자체의 형태적인 변화를 통하여 화수 행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의문문을 화수 행위에 대응시키기 위하여 질문 행위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영어에서도 이와 같이 의문문의 문형과 화수 행위와 직접적 조응을 인정하고 그 필요성을 느낀 G. N. Leech가 화행을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문형과 화수 행위를 대응시킨 바 있다.²⁷⁾

문형		화수 행위
평서문(declarative)	—	단언 행위(assert)
의문문(interrogative)	—	질문 행위(question)
명령문(imperative)	—	요청 행위(request)

27) G. N. Leech(1981), *Semantics*, p.335. : 임지봉(1992), 『국어의미론』, 남서울출판사, p.356에서 재인용

따라서 문형과 화수 행위의 대응 방법에 있어서 Devlin이 분석하고 있는 단언 행위와 요청 행위의 이분법보다 G. N. Leech가 분류한 단언 행위, 질문 행위, 요청 행위의 3분법이 우리 국어에 적용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 하겠다. 영어권에서는 요청의 화수 행위에 의하여 문장 유형으로는 명령문, 화행 유형으로는 명령 화행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2 화용론의 입장에서 본 국어의 문형과 명령 화행

이처럼 문형에 대한 화용론적 대응은 국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다.

최현배는 「우리말본」에서 이미 그 가능성을 타진하여 각 월은 그 풀이씨의 씨 끝으로 결정되나, 다음과 같이 각 월이 가지는 화용론적 쓰임을 분석한 바 있다.²⁸⁾

- 베푼월이 물음월의 의미로 ⇒ “너는 못하겠다? ↑(억양)”
- 물음월이 베푼월의 의미로 ⇒ “너도 사람이냐?”
- 물음월이 시킴월의 의미로 ⇒ “너는 밥을 안 먹니?”
- 물음월이 꺾임월의 의미로 ⇒ “자네는 같이 안 가겠는가?”
- 꺾임월이 시킴월의 의미로 ⇒ “그 책 좀 보여 주어라.”

그러나 그의 분석은 통사적 종결어미의 예외적 용법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 아직 화행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종결어미의 형태적 특성만으로 분류하고 있는 국어 문형은 화용론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국어의 문형과 화수 행위의 대응 방법을 고찰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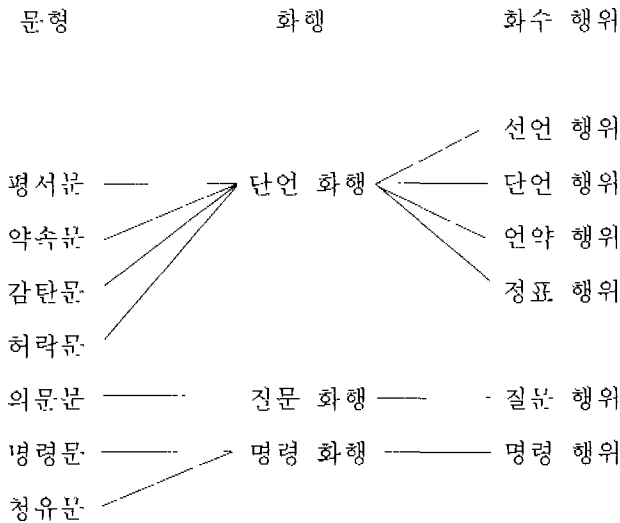
국어의 화수 행위 자체는 영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Searle이 제시한 단언 행위, 정표 행위, 언약 행위, 선언 행위, 요청 행위의 다섯 가지 화수 행위와 G. Leech가 첨가한 질문 행위를 합하여 여섯 가지 화수 행위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

28) 최현배(1971), 앞의 책, pp.827~841.

을 것이다. 이 화수 행위를 국어 문형에 대응시킬 때, 단언 행위, 정표 행위, 언약 행위, 선언 행위 모두는 그 발화 행위가 모두 단언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단언 화행으로 묶여 평서문에 대응된다. 요청 행위는 명령 화행으로 명령문에 대응되며, 질문 행위는 질문 화행으로 의문문에 대응될 것이다.

여기서 감탄문은 화행 의미로 보아 화자 자신의 감정 정보 전달에 있기 때문에 단언 화행으로 처리하며, 청유문은 진장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화용론의 측면에서는 화자가 이미 감정적으로 결정해 놓은 행동화를 청자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요청하는 성격의 문형이기 때문에 명령 화행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국어의 화행은 그 문형과 화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관계를 갖는다.



이와 같이 문형과 화행과의 대응 관계를 놓고 볼 때, 명령 화수 행위²⁹⁾에 의해 나타나는 명령문과 청유문의 문장 유형이 명령 화행으로 발화된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9) 화수 행위 중, '요청 행위'의 용어는 이 논문의 II장 2.5에서 명령 화행의 3개 행위인 '지시 행위, 요청 행위, 청유 행위' 중의 하나로 나오며, 또한 '요청'의 의미가 '명령'의 전체 의미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 행위'의 용어로 바꾸어 사용한다.

2.3 명령 화행의 구분 기준

- (1) a. 밥 먹어라. (밥을 먹더라.)
b. 밥 먹으라. (밥 먹어라.)

제주 방언에서 (1)a는 평서형 종결어미 ‘-어라’로 나타나는 평서문이고, (1)b는 명령형 종결어미 ‘-으라’로 나타나는 명령문이다. 따라서 위의 두 문장을 발화한다 하더라도 그 종결어미의 형태적 차이(‘-어’와 ‘-으’) 때문에 화행의 구분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발화는 형태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구분에 문제가 있다.

- (2) a. 학교에 가라. (학교에 가더라)
집이서 자라. (집에서 자더라)
b. 학교에 가라. (학교에 가거라)
집이서 자라. (집에서 자라.)

제주 방언의 위와 같은 발화에서 ‘가라’와 ‘자라’는 평서문과 명령문에 그 종결어미가 똑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통사론적 입장에서 구분하고자 하면, 첫째, 주어의 인칭 여부에 따라 (2)a가 3인칭 주어일 때는 평서문, (2)b가 2인칭 주어이면 명령문이 된다. 둘째, 시상에 따라 (2)a가 과거 시상이면 평서문, (2)b가 현재 시상이면 명령문이 된다. 셋째, 그 억양과 강화 여부에 따라 (2)a에서 ‘가라’, ‘자라’와 같이 장음, 또는 강화되면 평서문, (2)b에서 ‘가라’, ‘자라’가 단음이거나 강화되지 않으면 명령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의 구분 기준에 대하여 문법적 측면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고성환³⁰⁾은 간접 명령문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어, 또는

30) 고성환(1996), 앞의 글, p.55.

호격 대상일 때 그 인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니희날 중 아무도 이것을 만지지 말라.’

이 때 표면상의 주어 ‘아무’는 3인칭이기 때문에 명령문의 논리와 실제 사이에서 적지 않은 고민을 가져다준다.

둘째, 억양에 따른 구분은 억양에 대한 뚜렷한 차이가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문형에 대한 구분을 화행 구분의 기준으로 바꾸어 제시하고자 할 때, 위의 문제점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명령 화행은 최소한 다음 두 가지의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① 명령 화행은 현재 이후의 시상에 해당하는 발화 행위라야 한다.

② 명령문에 있어서 2인칭 주어의 문제는 명령 화행의 입장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

2.4 문형 교체에 의한 명령 화행의 범주

명령 화행은 화자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청자를 따라오도록 요청하는 발화 행위이다. 그러나 명령 화행의 범주를 결정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Jacob L. Mey도 “명령이나 요청의 경우 명령문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명령’이나 ‘요청’이라는 언어 행위에 대한 진짜 언어적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포함한 많은 언어에서 선호되지 않는다.”³¹⁾라고 하여 영어에 있어서 명령문과 명령 화행의 범주를 결성하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용히 해라.

이 발화는 문상 유형이나 화행 모두 명령에 속한다. 그런데 청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 방법으로 이와 같은 명령문의 문장만이 있는

31) Jacob L. Mey(1993), 앞의 책, p.149.

것은 아니다. 그런 명령을 표현하기 위한 문장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더 나아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런 명령들의 대다수는 명령으로 공식화되어 있지 않고 대신 질문이나 단언, 회의, 암시 등으로 비공식화 되어 있다. 즉, 명령이란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명령 화행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조용히 하지 못 하겠니?

문장 유형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의문문이며, 지시적 의미 역시 질문의 형식이다. 그러나 발화 행위의 측면에서 볼 때, 청자는 이 발화를 정상적인 대화의 맥락에서 다소 불쾌한 명령으로 파악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형은 의문문이지만 화행은 명령 화행에 속한다.

- (3) a.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 b. 제발 조용히 해 다오.
- c. 조용히 하자.
- d. 오늘 따라 너무 떠드는구나.
- e. 다른 학급은 다 조용한데…….

(3)a와 (3)b는 간청을 하는 단언 행위의 평서문이고, (3)c는 청유문이다. (3)d는 감탄문의 유형을 취하고 있다. (3)e는 생략을 통해 발화의 목적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발화들에는 진정한 명령의 언어 행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장들도 발화의 입장에서 보면 ‘조용히 해라’ 하는 포괄적인 명령 행위로 귀결된다.

이상과 같이 명령 화행의 범주는 명령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평서문과 의문문에까지 확대하여 분석해야 한다. 실제로 김종택³²⁾은 문장이 표현하는 의미면에 따라서 명령문을 서술형 명령, 의문형 명령, 의구형 명령 등으로 나누어 화

32) 김종택(1982), 「국어화용론」, 형실출판사, pp.72~73.

행적 분류를 하고 있다. 이처럼 화행이 서로 다른 문장 유형에 걸쳐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임지룡은 명령 행위에 직접 발화 행위와 간접 발화 행위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³³⁾

직접 발화 행위는 종결어미의 형태와 기능이 일치함으로써 문법적인 명령문을 그대로 명령 화행에 대응시킬 수 있는 발화이며, 간접 발화 행위는 종결어미의 형태와 기능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문장 유형과는 상관없이 발화 상황에 근거하여 명령의 의미가 부여되면 명령 화행으로 인정하는 발화이다.

물론 문형과의 교체 상황, 즉 간접적 발화 행위가 명령 화행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체 상황이 단언 화행이나 질문 화행에 비하여 명령 화행의 경우가 더욱 심하다.

여기에서는 직접적 발화 행위와 간접적 발화 행위를 화행의 개념으로 바꾸는 과정에 그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직접’과 ‘간접’이란 용어 대신에 直接的 命令 話行과 迂迴的 命令 話行으로 그 용어를 바꾸어 설정한다. 물론 직접적 명령 화행의 상대적 개념으로는 間接的 命令 話行이 적절하다. 그러나 間接 命令이라는 용어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중간 매체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미를 시니게 된다.

(4) a. 아래 물음에 알맞은 답의 기호를 골라라.

b. 그들은 외국인들에게 물리가라고 합성을 질렀다.

위 예시문³⁴⁾ 중, (4)a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종이’라는 매체가 개입되어 있는 간접 명령문으로, (4)b는 간접 인용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 삼인칭 주어의 간접 명령문으로 해석하고 있다.³⁵⁾

따라서 간접적 명령 화행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간접 명령문과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迂迴的 命令 話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보다 적절하다. 즉, 명령의 의미를 발화할 때 직접 명령 행위를 통하지 않고, 단언 행위나 질문

33) 임지룡(1981),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pp.355~357.

34) 남기삼·고영근(1999), 『표준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p.355.

35) 남기삼·고영근(1999)과 고성환(1996)은 ‘간접 명령문은 제3자 주어인 경우의 명령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행위로 우회하여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명령 화행에서 우회적 성향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까?

그 원인은 명령 화행의 발화적 성격에 기인한다. 단언 행위, 질문 행위, 명령 행위의 세 가지 화행 중에서도 화용적 성격이 가장 강한 명령 화행은 화자에 대한 청자의 관계가 예측적 관계에 놓임을 뜻한다. 즉, 화자의 입장에 청자를 따라 오도록 하는 수행 발화이기 때문에 그 발화 표현이 강제성을 띤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는 원만하고 부드러운 인간 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청자에게 완곡한 형태의 화행을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어라.”라는 직접적이고 강제적이며 위압적인 발화의 형태를 “창문을 열어주겠니?”와 같이 완곡하고 공손한 우회적 명령 화행으로 바꿈으로써 청자와의 관계를 보다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완곡한 우회적 형태의 발화 행위는 문법론에서는 평서문이나 의문문, 청유문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화용론에서는 단언 행위나 질문 행위의 형태로 나타난다.

요컨대, 우회적 발화 행위는 하나의 발화가 청자에게 들 또는 그 이상의 표현 내적 수행력을 갖는 것으로서, 이것은 곧 단일한 표현을 통하여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 차원 높은 의사소통 방식이라 하겠다.

2.5 명령 화행의 분류 기준

명령 화행은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서 중심을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고, 명령 화수 행위의 직접성 여부에 따라 또한 그 유형을 달리 분류할 수 있다.

2.5.1 명령 화행은 화자의 발화로 인한 청자의 반응이 화자와 청자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의해 그 유형을 달리 한다.

첫째, 화자의 발화로 인한 청자의 반응이 화자에게 과급되는 要請 行爲의 명령 화행,

둘째, 화자의 발화로 인한 청자의 반응이 청자에게 국한하는 指示 行爲의 명령

화행,

셋째, 화자의 발화로 인한 청자의 반응이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과급되는 誦誘行爲의 명령 화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a. 밖이 춥구나. 그 방문 좀 닫아라.

b. 네 나이가 몇이니?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려라.

c. 시간이 너무 늦었구나, 우리 이제 그만 가자.

(5)a는 요청 행위의 명령 화행으로, ‘문을 닫아라’ 하는 화자의 발화에 청자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달지 않거나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어느 반응이든 화자를 위한(또는 화자의 뜻에 위배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화자 중심의 화행이 된다.

(5)b는 지시 행위의 명령 화행으로 청자가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화자의 발화가 청자 스스로를 위한(또는 위배되는) 청자의 행위로 나타난다. 즉, 청자 중심의 화행이다.

(5)c는 청유 행위의 명령 화행으로 화자의 마음은 이미 ‘간다’고 결정된 상태에서 상대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남는 것은 청자의 결정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형태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내가 가니까, 나도 가야지’로 반응하면 화자 중심의 요청 행위에 해당하고, ‘시간이 늦었으니깐, 나도 가야지’로 반응하면 청자 중심의 지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반응은 요청과 지시의 두 가지 명령을 포함하기 때문에 청유 행위의 명령 화행에 해당한다.

만일 (5)a의 예시 발화를 ‘밖이 춥구나. 네가 감기에 걸린 모양인데, 그 방문 좀 닫아라.’로 그 발화 상황을 바꾸면 이는 청자 중심이기 때문에 지시 행위의 발화에 해당한다.

또 (5)b도 ‘네 나이가 몇이니? 나도 이제 지쳤다.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려라.’로 그 발화 상황을 바꾸면 화자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는 요청의 발화에 해당한다.

특히 (5)c의 화자가 주인일 경우, ‘시간이 너무 늦었구나, 우리 이제 그만 일어서지.’라고 바꾸어 발화하면, 그 화행은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①‘나를 위

하여 그만 가 달라'는 요청 행위로, ②'밤이 깊었으니 내일을 위하여 일찍 가서 자라'는 지시 행위, ③'그만 헤어지자'는 청유 행위로 나타난다.

요컨대 화자의 명령 발화 행위가 화자와 청자 중, 어느 쪽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요청과 권유와 청유의 명령 화행으로 구분된다.

2.5.2 명령 화행은 그 화수 행위의 직접성 여부에 따라 직접적 명령 화행과 우회적 명령 화행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적 명령 화행은 문법적 명령문과 청유문에 대응하는 화행으로서 명령형 종결어미의 통사적 특성과 함께, 명확한 명령 의미의 발화를 그 조건으로 한다.

우회적 명령 화행은 2.2에서 제시한 단언 화행과 질문 화행 중, 명령으로 표현해야 할 화수 행위를 교체 활용한 문형으로서, 화자와 청자간에 명확한 명령 의미의 발화로 인정하고 반응하는 데 그 조건을 삼는다.

Ⅲ. 명령 화행의 유형

명령 화행은 요청 행위, 지시 행위, 청유 행위 등 세 기시의 명령 화수 행위에 의해서 발화된다. 또한 문형 상 명령문은 물론 청유문도 명령 화행으로 발화되며, 문장의 종결어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명령 화행은 이와 같이 직접적인 명령 행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언 행위나 질문 행위에 의해서 우회적으로 요청, 지시, 청유 등의 명령 행위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 때는 문형 역시 평서문이나 의문문 등을 통하여 명령 화행의 역할을 대신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명령 행위를 수행하는 실제의 발화 상황이 제주 방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분석하고자 한다.

1. 직접적 명령 화행

직접적 명령 화행은 명령문, 청유문과 대응하기 때문에 제주 방언의 명령형, 청유형 종결어³⁶⁾에 의해 나타난다. 제주 방언의 명령 종결어는 [-라]('아시라/-어시라', '-암시라/-엄시라'), [-아/-어]('아시어/-어시어', '-암시어/-엄시어'), [-주]('아시주/-어시주', '-암시주/-엄시주'), [-심]('아심/-어심', '-암심/-엄심'), [-H서]('아십서/-어십서', '-암십서/-엄십서')의 명령형 종결어미와 [-주]('아시주/-어시주', '-암시주/-엄시주'), [-게]('아시게/-어시게', '-암시게/-엄시게'), ['니주]('아십주/-어십주', '-암십주/-엄십주')의 청유형 종결어미와 '~마씀', '~게', '~이', '~양'과 같은 종결 첨사에 의해 나타난다. 따라서 직접적 명령 화행의 분류는 형식적 측면에서 우회적 명령 화행보다 뚜렷하다.

또한 직접적 명령 화행은 명령 행위를 뜻하는 발화 상황이 우회적 명령 화행에

36) '終結語尾'는 통사론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여기에서는 발화할 때의 終結語尾를 그 語幹과 합하여 '終結語'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한다. 따라서 앞으로 사용하는 '종결어'는 統辭的 用語가 아니라, 話用論의 입장에서 '終結 用語'의 개념을 지니는 용어임을 밝힌다.

비하여 뚜렷하기 때문에 명령의 성격이 명료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명령 화행의 성격을 그 명령의 강도 측면에서 보면, ①화자의 발화 억양 및 태도에 따라, ②발화 상황에 따른 표현의 차이에 따라, ③종결어의 쓰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밥 먹으라’는 화행에서,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강하게 행동을 지시할 때는 ‘먹으라’의 발화가 빨라지고 종료 부분에서 단정적 발화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지시의 명령이 비교적 약화된 때에는 그 발화가 느려지며 종료 부분도 길게 발음되어 애원의 의미를 표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정도의 강약은 발화 상황에 의한 감정 표현의 정도에 따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진술화 될 수 있도록 명확할 수는 없다.

‘뭐 햅염디? 햅저 밥 먹으라.’ (무엇 하고 있지? 빨리 밥 먹어라.)

‘고생햅였저, 햅저 밥 먹으라.’ (고생하였다. 빨리 밥 먹어라.)

앞의 명령 화행은 강한 지시에 해당하나, 뒤의 화행은 보다 약한 권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특정한 수식어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화행도 발화 상황에 따른 감정의 강약 정도에 따라 명령 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시 그 구분을 명확히 진술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음의 예화는 다르다.

밥 먹어↘. (종결음의 단정적 발화)

밥 먹으라.

밥 먹어↗↘. (종결음의 오르내림 억양)

밥 먹주.

밥 먹심.

위의 수행 발화는 동일한 상황에서 그 명령의 강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령 화행의 명령 강도는 종결어의 차이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물론 이 때도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수식어 첨가와 같

이 발화 상황이 변화될 경우에는 또한 그 강도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1.1 명령형에 따른 명령 화행

1.1.1 [-라]

‘-라’ 종결어는 표준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주 방언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직접 명령 화행의 종결어로 발화되고 있다.

(1) a. 난 이만 놀앙 집이 가키어, 이녁도 호뽀만 싯당 집디레 가라.

(나는 이만 놀고 집에 가겠어, 너도 조금만 있다가 집으로 가거라.)

b. 쫄생이 놔된 감시메, 올 때랑 2정 오라.

(호미 놔두고 가니까, 올 때는 가져 오너라.)

(1)a는 화자의 ‘가키라’ 하는 발화가 청자의 행동에 국한되는 시시 행위의 명령 화행이고, (1)b는 화자의 발화가 청자의 행동을 통하여 화자에게 다시 파악되어 확인하게 되는 요청 행위의 명령 화행이다.

그런데, 제주 방언에서는 어휘 형태가 동일하면서도 화자의 인칭과 발화 상황과 따라 화행이 다르게 나타나는 예화를 찾을 수 있다.

(2) a. (철수 봐서냐?) 쫄수 학교레 가라.

(철수 보았니? 철수 학교에 가거라.)

b. 철수야, 니랑 학교레 가라.

(철수야, 너는 학교에 가거라.)

(2)a는 화자 ‘나’가 청자 ‘누구’에게 철수의 과거 행동(현재 전)을 발화하기 때문에 단언 화행이다. 그러나 (2)b는 화자 ‘나’가 청자 ‘철수’에게 현재 이후의 행동을 지시하고 있어서 명령 화행에 속한다. 종결어인 ‘가라’ 만을 놓고 볼 때는 그 차이점을 추측할 수 없지만 행동화의 주체가 청자인지 아닌가와 시상에 따라 화행

의 유형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2)a의 발화는 특이한 경우에 한하고, 현재 전 대상자의 행동화에 대한 확인의 종결어로는 '가라' 대신에 '감서라'로 나타난다.(1.1.2 참고) 따라서 단언 화행의 종결어 '감서라'에 대응하는 명령 화행 종결어는 '감시라'이기 때문에 그 유형 구분에 있어 이미 어휘 형태적으로 판별이 된다.

또한 표준어 발화에서는 '으라'와 '-아라/-어라'의 형태로 명령 발화가 이루어지나, 제주 방언에서는 '으라'의 형태로만 나타나고 '-아라/-어라'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현재 제주 언중들이 간혹 '-아라/-어라'의 형태로 발화하기도 하나, 이는 표준어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3) a. 저레 가는 사람 심으라.

(저쪽으로 가는 사람 붙잡아라.)

b. 니 밥 먹으라.

(너 밥 먹어라.)

'-라' 종결어의 유형에 완료 존속의 의미를 지니는 '-아시라/-어시라'와 미완료 존속의 의미를 지니는 '-암시라/-엄시라'가 있다.³⁷⁾

(4) a. 나랑 이디서 생이 다울림시커메 니랑 집이 가시라.

(나는 여기에서 새 쫓고 있을 테니 너는 집에 가 있거라)

b. 아기 몸곰질거난 문 호끔 더꺼시라.

(아기 목욕시킬 테니까 문 좀 닫아 있어라.)

c. 검질 메염시커메 알녀 밧디 강 물 뵈시라.

(김 메고 있을 테니 아래쪽 밧에 가서 말을 보고 있어라.)

d. 확 밧 싹게 물 데왓시라.

(빨리 밧 싹게 물 데우고 있어라.)

37) 현평효(1974), 앞의 글, p.127.

(4)a와 (4)c는 지시의 명령 화행이며, (4)b와 (4)d는 요청의 명령 화행이다. 또한 (4)a와 (4)b는 원료 존속의 상황이며, (4)c와 (4)d는 미완료 존속의 상황을 뜻한다.

1.1.2 [아/- 어]

‘-아/-어’의 명령 화행은 앞의 ‘-라’ 종결어를 압축하여 사용하는 형태이나 그 화행의 쓰임이 ‘-리’ 종결어 만큼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는 제주 방언 고유의 화행이라기 보다는 표준어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표준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어’의 형태를 명령 종결어로 쓰고 있으며, 제주 방언보다는 훨씬 일반화되어 쓰인다. 제주 방언에서는 ‘-아/-어’의 형태보다는 ‘-리’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 (5) a. 집이 가. 밥 먹어.
 (집에 가.) (밥 먹어.)
 b. 집이 가라. 밥 먹으라.
 (집에 가라.) (밥 먹어라.)
 c. 존소리 밭앙 이레 ㄴ정 와.
 (산소리 말고 이리 가져와.)

(5)a, b는 지시의 명령 화행이며, (5)c는 요청의 명령 화행이다. 제주 방언에서는 (5)a에 비하여 (5)b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아/-어’의 명령 화행은 ‘-라’의 화행과 화행의 강도나 느낌에서 차이가 난다.

- (6) a. 이녁이나 혼자 먹어. - 이녁이나 혼자 먹으라.
 (당신이나 빨리 먹어)
 b. 이레 잘 베려. - 이레 살 베리라.
 (여기 잘 보아.)

이 '-아/-어'의 발화 행위는 올림 단절 억양으로 표현할 때는 '-라'에 비하여 그 명령의 강도가 높고, 오르내림 억양에 의해 길게 발화할 때는 오히려 그 명령의 강도가 '-라'보다 약화된다.

즉, 수행 발화 시 '-아/-어'를 짧게 상승하여 단절하면 청자의 행동에 대한 요청이나 권유의 강화로, 이를 길게 오르내림 억양으로 표출하면 청자의 행동에 대한 애원이나 부탁의 의미를 띠게 된다.

(7) a. 이레 잘 베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이쪽으로 잘 봐.)

b. 이레 잘 베리라↘.

(이쪽으로 잘 보아라)

c. 이레 잘 베려↗↘.

(이쪽으로 잘 보았으면 좋겠다)

위와 같이 그 명령의 강도에 있어 (7)a의 '-아/-어↗'가 가장 강하며, 그 다음에 (7)b의 '-라↘', 다음 c의 '-아/-어↗↘'가 가장 약하다. 그 중, '-아/-어↗↘'의 강도는 다음에 논의될 '-주'나 '-심'의 종결어를 사용할 때와 그 명령의 강도가 비슷하다 하겠다.

'-아/-어' 종결어도 '-라' 종결어와 마찬가지로 완료존속의 의미를 지니는 '-아시어/-어시어'와 미완료 존속의 의미를 지니는 '-암시어/-엄시어'가 있다.³⁸⁾

(8) a. 흔저 차례 올라서.

(빨리 차에 올라 있어.)

b. 집이 강 밥이나 먹어서.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 있어.)

c. 잇땅 즈들지 마랑 재게 먹엄서.

(나중에 걱정하지 말고 빨리 먹고 있어.)

38) 현평효(1974), 앞의 글, p.127.

(8)은 특정한 상황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모두 지시의 명령 화행에 해당한다. (8)a, b는 완료 존속의 상황이며, (8)c는 미완료 존속의 상황이다.

1.1.3 [-주]

‘-주’ 종결어는 화자의 상대인 청자가 비교적 비슷한 연배에 사용한다. 따라서 명령형 종결어 ‘-주’를 사용한 명령 화행은 그 명령의 강도가 ‘-라’나 ‘-아/-어’의 화행보다 낮게 나타난다. 표준어에서는 ‘-지’와 ‘-게’의 형태로 사용된다. ‘-지’는 아랫사람이거나, 비슷한 연배에 쓰이고, ‘-게’는 비슷한 연배일 때 사용한다. 이중 ‘-게’의 형태는 제주 방언에서 청유의 종결어로 쓰인다.

그런데 제주 방언에서 ‘-주’ 종결어는 권유나 요청의 명령 화행보다는 청유의 명령 화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를 형태론적으로 분석한 연구 중에는 이를 명령형 종결어미로 분류하지 않고 청유형 종결어미로 분류하기도 하였다.³⁹⁾ 그러나 다음 예시한 발화를 보면 지시나 요청의 명령 화행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음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9) a. 저 사름 버천 호염신게. 그만 호영 집이 가주.

(당신 힘들어 하고 있어. 그만 하고 집에 가지.)

b. 거 내불지 마랑 이레 ㄱ져 오주.

(그것 내버리지 말고 이리 가져오지.)

(9)a는 청자가 피곤한 것을 보고 청자 먼저 집에 들어가도록 권유하는 지시의 명령 화행이며, (9)b는 청자에게 가져오도록 요청하는 명령 화행이다. 두 개의 화행 모두 ‘가다’와 ‘오다’의 동작주는 청자이며, 화자가 함께 하지는 않는다.

또한 ‘-주’ 종결어가 비교적 비슷한 연배의 청자에게만이 아니라 한참 아랫사람에게도 사용하는 예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청자를 비슷한 연배로 올려놓아, 놀리거나 답답해서 지시하거나 하는 발화 행위에 해당한다.

39) 최학규(1989), 앞의 글.

(10) (칭얼대는 아기를 보며) 아이고, 이제랑 그만 좀 자주.

(아이구, 이젠 그만 잠 자지.)

1.1.4 [-심]

‘-심’을 종결어로 사용하는 명령 화행은 주로 제주의 부녀자들 사이에서 쓰인다고 분석하고 있다.⁴⁰⁾ 또한 그 화행의 청자는 위 아랫사람 모두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명령의 강도 또한 발화 상황에 비추어 강하거나 약하게 나타난다.

(11) a. 뭇캐지 말앙 혼저 ㄴ져오심.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가져오게.)

b. 아시야, 그만 혼영 집이 가심.

(아우님, 그만 하고 집에 가지.)

c. 성님도 하영 먹으심.

(형님도 많이 먹으세요.)

(11)a는 일반적인 발화 상황으로 볼 때, 한참 아랫사람에게 요청하는 ‘-라’의 명령 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령 강도가 높다. (11)b는 아랫사람 또는 동년배(청자인 아우와의 나이 차에 따라서)에게 해당하는 지시의 명령 화행으로 ‘-라’, ‘-주’로 대응할 수 있다. (11)c는 오히려 위사람을 청자로 하는 경우로 ‘-너서’에 해당하며, 그 발화가 자연스럽게 못하며 명령의 강도는 낮다고 하겠다.

특히 (11)b의 발화는 청자의 동작에 화자가 함께 할 때, 청유형의 종결어미로 처리하여 청유의 명령 화행이 될 수도 있다.

그만 혼영 집이 가심.(청유) ⇒ 그만 하고 집에 가자.

제주 방언의 명령형 종결어 ‘-심’에 해당하는 표준어의 형태로는 비슷한 연배에게는 ‘-게’로, 나이 차가 있는 아랫사람에게는 ‘-으렴’의 형태로 구분되어 사용되

40) 현평효(1974), 앞의 글, p.128.

고 있다.

1.1.5 [-H서]

‘-H서’ 종결어는 청자가 윗사람일 때 쓰이는 명령 화행이다. 그러나 지시나 요청의 명령 강도는 발화 상황에 따라서 그 강약의 정도가 다양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종결어의 구분만을 두고 그 강약의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12) a. 조그만이 먹영 일어삼서.

(적으만치 먹고 일어서세요.)

b. 아지방이랑 밥 차려줍서.

(아주머니는 밥 차려주세요.)

c. 아지방이랑 제발 니사지 맙서.

(아주머니는 제발 나서지 마세요.)

(12)a는 손 위 청자에 대한 지시 행위의 명령 화행이며, (12)b 역시 손 위 청자에 대한 요청 행위의 명령 화행이다. 그러나 둘 다 화자보다 청자가 윗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그 명령의 강도가 강하지 않으며, 특히 (12)a는 권유의 지시 행위라 하겠다.

그에 비하여 (12)c는 ‘제발’이라는 어휘가 들어가면서 그 발화 상황에 따라서 지시 행위나, 요청 행위 중에 해당하는 명령 화행이다. 또한 그 화수 행위로 볼 때는 상황과 어조에 따라 강화된 지시 또는 요청의 행위로, 간청의 지시 또는 요청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H서’의 형태적 계열로 완료 존속의 의미를 지니는 ‘-아십서/-어십서’와 미완료 존속의 ‘-암십서/-업십서’의 높임 명령의 종결어미가 있다.

(13) a. 성님이랑 아기 보병 쉬어십서

(형님은 아기 보면서 쉬어 있으세요.)

b. 성님이랑 한견헌게 조릅에 워십서

(형님은 한가하게 뒤에 오고 있으세요.)

(13)a는 완료 존속의 지시 명령에 해당하며, (13)b는 미완료 존속의 상황으로서 지시, 또는 요청의 명령 화행이다.

그런데 제주 방언에는 순위 청자에게 사용하는 명령형 종결어로 ‘-니서’ 하나 뿐이다. 그러나 표준어에는 통사론에서의 주체높임 선어말어미인 ‘-시’에 따라붙는 ‘-(으)오’, ‘-소’, ‘-구려’, ‘-(으)소서’ 등 제주 방언보다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따라서 종결어미의 쓰임만으로 명령 화행을 이끄는 용례가 표준어에 비하여 제주 방언이 미흡하다.

1.2 청유형에 따른 명령 화행

1.2.1 [-게]

‘-게’ 종결어는 청자가 비슷한 연배이거나 아랫사람일 경우에 두루 쓰이는 청유의 명령 화행 종결어로서 표준어 발화의 ‘-자’에 해당하나, ‘-자’는 주로 아랫사람에만 사용한다. 뒤에 나오는 ‘-주’가 요청이나 지시의 명령 화행으로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제주 방언에서는 오직 청유의 화행으로만 쓰이고 있다.

(14) a. 오라, 집이 가게.

(오너라, 집에 가자.)

b. 우리 그만 휴영 휴술 쉬게.

(우리 그만 하고 조금 쉬자.)

(14)a는 화자가 청자 1인에게 같이 집에 가자고 청유하고 있고, (14)b는 화자가 청자 1인 이상에게 같이 쉬자고 청유하고 있다. 둘 다 그 청자는 화자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아니면 아랫사람일 때에 해당한다.

그런데 표준어의 ‘-게’는 청유 행위에는 사용되지 않고, 요청이나 지시의 명령 화행 종결어로 사용된다. 즉, 청유형 종결어미로는 나타나지 않고 명령형 종결어

미로만 나타난다.

자네 그만하고 집에 가게.

이 발화 행위는 청자에게 집에 가는 동작을 권유할 뿐, 화자는 동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시시의 명령 화행이다.

‘-게’ 종결어도 미완료 존속의 의미를 지니는 ‘-암시게/-엄시게’와 완료존속의 의미를 지니는 ‘-아시게/-어시게’의 화행이 있으나, ‘-아시게/-어시게’의 경우는 그 쓰임이 일반적이질 못하다.

(15) a. 저녁 때 멀어시난 흐꿈 잠시게.

(저녁 때 벌었으니 좀 자고 있자.)

b. 우리 먼저 저녁 먹어시게.

(우리 먼저 저녁 먹어 있자.)

(15)b는 부자연스러운 발화로서, 보통 다음과 같이 변용하여 쓰인다.

우리 먼저 저녁 먹엉 싶게.

(우리 먼저 저녁 먹어서 있자.)

제주 방언의 ‘-게’는 청자가 화자보다 손위일 때, 뒤에 ‘~마씀’을 붙여 ‘-세마씀’으로 발화하거나, ‘-니주’의 형태로 존대의 의미를 나타낸다. (1.2.4 [-니주] 참조)

1.2.2 [-주]

‘-주’ 종결어는 1.2.1의 ‘-게’ 종결어와 마찬가지로 청자가 비슷한 연배이거나 아랫사람인 경우에 사용하는 청유의 명령 화행으로서 그 명령의 강도는 앞의 ‘-게’ 종결어보다 비교적 약하다. 제주 방언의 ‘-주’ 종결어는 표준어 발화의 ‘-자’ 종결

어에 해당한다.

(16) a. 우리 집이 가게.

(우리 집에 가세.)

b. 우리 집이 자주.

(우리 집에 가지.)

(16)a나 (16)b 모두 화행적 명령의 의미는 청유 행위로 서로 같으나, 그 명령의 느낌은 다르다. (16)a는 집에 가야 된다는 화자의 판단을 위주로 하여 청자의 판단 여부와는 별 관계가 없을 경우이며, (16)b는 화자의 판단과 함께 청자의 판단 여부에도 거의 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16)a에 비하여 (16)b의 명령 강도가 비교적 낮다고 하겠다. 또한 이는 (16)b의 청자가 (16)a보다 비교적 순위에 해당할 때 사용되는 발화라 하겠다.

‘-게’ 종결어가 요청이나 지시의 명령 화행으로는 쓰이지 않고 오직 청유의 명령 화행으로서 청유형 종결어로만 쓰인 것과는 달리, ‘-주’ 종결어는 1.1.3에서 언급한 바대로 지시나 요청의 명령 화행으로서 명령형 종결어로 쓰이기도 한다.

(17) a. 저 사람 버친 호염신게. 그만 호영 집이 자주. 뒤의 건 나가 호커매.

(당신 힘들어 하는군. 그만 하고 집에 가지. 뒤에 것은 내가 할 테니.)

b. 저 사람도 버친 모양인게, 우리 그만 호영 집이 자주.

(당신도 힘든 모양이군, 우리 그만 하고 집에 가지.)

(17)a와 (17)b의 구분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17)a는 청자에게 동작을 권유하고 있을 뿐 화자의 동참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러나 (17)b는 청자에게 요구하는 동작에 화자가 동참한다는 상황이 청유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 종결어는 동작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동참 여부에 따라 청유의 명령 화행과 지시·요청의 명령 화행으로 나누어진다.

‘-주’ 종결어도 미완료 존속의 의미를 지니는 ‘-암시주/-엄시주’와 완료 존속의

의미를 지니는 ‘-아시주/ 어시주’의 화행이 있으나, ‘-아시주/ 어시주’는 역시 그 쓰임이 일반적이질 못하다.

(18) a. 우리 먼저 집이 감시주.

(우리 먼저 집에 가고 있사.)

b. 우리 본서 집이 가시주.

(우리 먼저 집에 가 있사.)

(18)b는 부사연스러운 발화로서, 보통 다음과 같이 변용하여 쓰인다.

우리 먼저 집이 강 잇주.

(우리 먼저 집에 가서 있사.)

1.2.3 [라]

제주 방언에서 ‘가다’는 명령형 종결어로 ‘가라’를 쓰는 데 비하여 청유형 종결어로는 ‘글라’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미 활용이 다른 청유형 종결어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쓰임도 일반적인 ‘-라’ 계 명령 종결어와는 차이가 있다.

(19) a. 집이 글라.

(집에 가자.)

b. 집이 글라, 나랑 더 혼당 가커메.

(집에 가자, 나는 더 하다가 갈테니)

(19)a는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하자는 청유의 명령 화행으로서 ‘집이 가세’와 그 기능이나 의미가 같다. 그러나 (19)b는 화행의 오류다. ‘글라’를 사용하면 화자와 청자의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19)b와 같이 화자의 행동과 청자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 수가 없는 어휘이다. 따라서 ‘글라’는 ‘-라’의 형태를 지니는 유일한 청유의 명령 화행에 해당한다.

그런데 '-라' 종결어를 독립적인 청유의 명령 화행으로 분석하기에는 이 유형에 해당하는 종결어가 오직 이 '글라' 하나 뿐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어휘 자체의 특이한 형태로 지적하는 것에 그친다.⁴¹⁾ 한편 그 형태에서 독자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은 표준어의 명령형 종결어 '가거라'와 '오너라'의 '-거라/-너라'와 유사하나, '글라'는 청유 행위이고, '가거라'는 지시 행위이기 때문에 서로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1.2.4 [-ㅂ주]

'-ㅂ주' 종결어는 청자가 뒷사람일 때 쓰이는 청유의 높임 명령 화행이다. 표준어의 '-ㅂ시다'가 이에 해당한다.

- (20) a. 삼촌, 바당도 낚난, 레기나 잡읍주.
 (삼촌, 바다도 고요하니, 고기나 잡읍시다.)
 b. 우리 날도 더운디 목굽으레 갑주.
 (우리 날도 더운데 목욕하러 갑시다.)

(20)a는 화자가 청자 1인에게 같이 고기 낚으러 가자고 청유하고 있고, (20)b에서는 화자가 청자 1인 이상에게 목욕 가자고 청유하고 있다. 둘 다 그 청자는 화자의 손윗사람일 때 해당한다.

그런데 '-ㅂ주' 종결어도 '-주'와 마찬가지로 청유의 명령 화행만이 아니라, 지시나 요청의 명령 화행으로 쓰이게 된다. 그러나 이 때는 '-ㅂ주' 대신에 '-ㅂ서'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1) a. 삼촌, 버친거 닳은 게, 그만 흐영 집이 갑주. 뒤의 건 나가 흐커메.
 (삼촌, 힘든 것 같은데, 그만 하고 집에 가세요. 뒤의 것은 내가 할 테니.)
 b. 삼촌도 버친 모양인게, 우리 그만 흐영 집이 갑주.

41) 이승녕(1985:61~62)은 '글라'를 勸誘의 平稱으로서 '가다'의 불완전 활용에 의한 예외적 형태로 분석하고 있다.

(삼촌도 힘든 모양이군, 우리 그만 하고 집에 갑시다.)

(21)a의 '-니주'는 명령 종결어로 지시의 명령 화행이며, (21)b의 '-니주'는 청유 종결어로서 청유의 명령 화행이다. (21)b는 자연스러운 발화 행위이나, (21)a는 부자연스러운 발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반화된다.

그만 할영 집이 갑주. ⇒ 그만 할영 집이 갑서.
(그만 하고 집에 갑시다.) (그만 하고 집에 가세요.)

'니주'의 형태적 계열로 완료 존속의 의미불 지니는 '-아십주/-어십주'와 비완료 존속의 '-암십주/-엄십주'의 높임 청유형의 종결어가 있으나, '-아십주/-어십주'는 역시 그 쓰임이 일반적이지 못하다.

- (22) a. 우리 먼저 집이 갑십주.
 (우리 먼저 집에 가고 있습니다.)
 b. 우리 먼저 집이 가십주.
 (우리 먼저 집에 가 있습니다.)

(22)a의 발화에 비해 (22)b는 자연스러운 화행이 아니다. (22)b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용하여 쓰인다.

우리 먼저 집이 강 이십주.
(우리 먼저 집에 가서 있습니다.)

1.3 종결 첨사에 따른 명령 화행

제주 방언의 명령 화행에서 가장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명령 종결어에 형태소가 첨가된 명령 화행이다. 이와 같이 명령형 종결어나 청유형 종결어에 형태소

가 첨가되어 명령의 의미에 변화를 주는 제주 방언의 종결어에 ‘~마씀’, ‘~게’, ‘~이’, ‘~양’ 등이 있다. 이들을 여기에서는 침사라는 용어로 사용한다.⁴²⁾

이 중, ‘~마씀’과 ‘~게’는 침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의문점이 없으나, ‘~이’와 ‘~양’은 침사로서의 기능과 역할보다는 문장 축약의 대응 형태로 나타난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마씀’과 ‘~게’는 각 론에서 나타나겠지만 다양한 활용과 독특한 의미 표현을 하는 침사로서, 이에 대응하는 표준어의 명령 종결어 침사가 뚜렷하지 않다. 그만큼 이 침사들은 제주 방언의 명령 화행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3.1 [~마씀]

‘~마씀’은 명령형 종결어 ‘-아/-어’, ‘-주’, ‘-ㅂ서’, ‘-ㅂ주’와 청유형 종결어 ‘-주’, ‘-게’, ‘-ㅂ주’의 뒤에 붙어 각각의 명령 화행에 의미를 부가하는 침사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마씀’은 명령 화행이 아닌 단언 화행이나 질문 화행에도 두루 사용되고 있다.

그 첨가 의미는 우선, 명령형 종결어 ‘-아/-어’, ‘-주’와 청유형 종결어 ‘-주’, ‘-게’에 붙어 높임의 의미를 부여한다.

(23) a. 집이 가마씀.

(집에 가세요.)

b. 술 취하엿수다, 이제랑 집이 가주마씀.

(술 취하였네요, 이제는 집에 가세요.)

c. 나영 혼디 집이 가주마씀.

(나랑 같이 집에 갑시다.)

d. 집이 가개마씀.

(집에 갑시다.)

42) 현평호(1974:68)는 ‘添辭’로 용어화하였고, 박용후(1960:408)는 ‘힘주는 씨가지’[強勢接辭]로, 최학규(1989:43)는 ‘強勢補助詞’로 정의하였다.

(23)a~d는 모두 화자가 청자를 높이는 명령 화행으로서, 그 높임의 기능과 의미를 ‘~마씀’이 받고 있다. 그렇다고 (23)a를 ‘갑서’, (23)b, (23)c, (23)d를 ‘갑주’로 바꾸어 높임의 화행으로 고쳤을 때, ‘~마씀’을 첨가한 발화의 의미와 동일하지는 않다.

따라서 ‘~마씀’은 높임의 의미 외에 화자와 청자의 관계나 발화 상황에 따라서 독특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⁴³⁾

(24) a. 십이 가마씀.

b. 술 취허여수다, 이제랑 집이 가주마씀.

c. 집이 갑서마씀.

d. 집이 갑주마씀.

e. 집이 가게마씀.

f. 나영 혼니 집이 가주마씀.

g. 술 취허여수다, 이제랑 십이 갑주마씀.

(24)a~g의 ‘~마씀’이 윗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마씀’을 덧붙임으로 해서 순위 청자를 상대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명령의 강화(‘집이 갑서, 제발 가마씀.’),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 데 대한 불쾌감과 불만(‘안 가주과, 가게마씀.’), 애원의 강화(‘술 취허여수다, 이제랑 세발 집이 가주마씀.’) 등과 같이 발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특히 (24)c, (24)d, (24)g와 같이 높임의 명령 화행에 첨가된 ‘마씀’은 높임의 기능은 없고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의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 명령의 강도에 있어서 (24)b보다는 (24)a가, (24)d보다는 (24)c가, (24)f보다는 (24)e가 높다. (24)b와 (24)g는 그 쓰임이나 명령의 강도가 똑 같다. 이는 (24)b의 낮춤 표현이 ‘~마씀’에 의해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24)g의 ‘갑주마씀’과 같은 반복적 높임 표현은 의미에 변화를 더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43) ‘~마씀’에 대하여, 현병호(1974:68)는 反問의 音調型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박용후(1960:408)와 최학규(1989:42)는 윗말의 강조, 반문, 서술, 의문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마씀’과 같은 기능을 표준어에서는 ‘-요’가 맡는다고 할 수 있다.

밥 먹어요.

밥 먹지요.

그러나 위와 같이 명령형 종결어 ‘-아/-어’, ‘-지’와 청유형 종결어 ‘-지’에만 첨가되어 있을 뿐, 다른 명령 화행 종결어에는 붙지 않는다. 또한 그 의미도 높임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을 뿐, 제주 방언에서와 같은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제주 방언의 ‘~마씀’은 독립적 형태소로서 첨사의 기능을 가지나, 표준어의 ‘-요’는 독립적 첨사로서보다는 높임의 종결 보조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하겠다.

1.3.2 [~계]

‘~계’는 제주 방언의 명령 화행 종결어 모두의 뒤에 붙어서 윗말에 대하여 명령의 반복, 명령의 확인, 명령의 애원 등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첨사로서 명령의 강도를 보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앞의 ‘~마씀’ 종결어가 제주 방언의 명령 화행은 물론 모든 화행에 두루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계’ 종결어는 일반적인 질문 화행⁴⁴⁾에는 사용되지 않고 단언 화행의 일부에 사용된다. 특히 단언 화행보다는 명령 화행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종결어 첨사로서, 표준어에는 이에 대응하는 형태가 없다. 단 질문 화행으로 사용할 때, 표준어 ‘~응?’이 거리는 있지만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25) a. 그만 흥영 밥 먹으라계.

(그만 하고 밥 먹어라.)

b. 이제랑 집이 갑주계.

(이제는 집에 갑시다.)

44) 질문 화행의 경우 ‘무사 감수광계?’와 같이 금지의 의미를 지닌 우회적 명령 화행에 대응하는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다.

c. 어떡하면 남의 집다래 감수광계?

(어째서 남의 집으로 가십니까?)

d. 지네 아긴 살도 삼째계.

(너의 아기는 살도 자는구나.)

(25)a는 명령의 '-라' 종결어에 첨사 '~계'를 덧붙여 발화 상황의 의미(독촉, 반복, 강조 등)를 부여한 지시 행위의 명령 화행이며, (25)b 역시 높임 청유의 종결어 '-비주'에 첨사를 붙인 청유 행위의 명령 화행이다. (25)c는 질문 행위에 첨사를 붙여 금지의 의미를 표현한 우회식 명령 화행으로 '남의 집으로 가시 발라.'는 발화이다.

그러나 (25)d는 단언 행위 종결어 '삼째'에 감탄의 의미를 지닌 첨사 '~계'를 붙인 단언 화행으로서, 이와 같이 단언 행위의 종결어 다음에 첨사 '~계'가 붙는 발화가 많지는 않다.

(26) a. 이제랑 그만 좀 자게\.

(이제는 그만 잠 자.)

b. 집이 가게.

(집에 가자.)

(26)a의 '자게'는 '자게\.'의 오르내림 억양으로 '자-'를 길게 발화하여 발화 내용을 독촉하거나 강조하는 지시의 명령 화행이며, (26)b는 청유의 종결어(1.2.1 '-계')로 '가-'와 '-계'는 짧게 발화된다. 따라서 이 두 화행의 구분은 발화의 억양과 장단으로 이루어진다.

1.3.3 [~이], [~양]

'~이' 종결어는 명령형 종결어 '-라', '-아/ 어', '-주'와 청유형 종결어 '글라', '-주', '-계'의 뒤에 붙어 낮춤 화행일 때만 사용하며, 명령 화행 이외에 단언 화행과 질문 화행의 일부에도 쓰인다. 그러나 '~양'은 '~마씀'과 마찬가지로 명령형

종결어 ‘-아/어’, ‘-주’, ‘-ㅂ서’, ‘-ㅂ주’와 청유형 종결어미 ‘-주’, ‘-게’, ‘-ㅂ주’의 뒤에 붙어 높임의 명령 화행으로 사용하며, 또한 단언 화행과 질문 화행에도 쓰인다.

그런데 이 ‘~이’와 ‘~양’은 내림 억양과 오름 억양의 두 가지로 발화된다. 내림 억양으로 발화하면 명령 확인의 의미를 나타내고, 오름 억양으로 발화하면 명령에 대한 확인 질문의 의미를 지닌다.

- | | |
|-------------------|-----------|
| (27) a. 밥 먹으라+이↘. | 밥 먹게+이↘. |
| b. 밥 먹으라+이↗. | 밥 먹게+이↗. |
| c. 밥 먹어+양↘. | 밥 먹읍서+양↘. |
| d. 밥 먹어+양↗. | 밥 먹읍서+양↗. |

(27)a, (27)b는 낮춤 화행이고, c, d는 높임 화행이다. (27)a의 ‘이’는 화자의 명령을 단언의 행위로 확인하는 어휘로서 ‘밥 먹어라, 꼭’에 해당한다. 그러나 (27)b는 화자의 명령을 질문의 행위로 확인하는 경우로서 ‘밥 먹어라, 알았니?’에 해당한다. (27)c와 (27)d도 높임 화행이라는 점만 다르고 그 의미와 행위는 마찬가지로 다르다.

이렇게 볼 때, ‘~이’와 ‘~양’은 앞서 설명한 ‘~마씀’과 ‘~게’와 같은 유형의 명령 종결 첨사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독립어로서 파악해야 옳다. 그 근거로서 그 자체에 의문의 행위가 담겨있기 때문에 질문 화행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와 ‘~양’이 윗말과 사이를 두고 발화되는 음성 현실을 적용할 때, 그 근거는 더욱 뚜렷해진다. 따라서 ‘~이’와 ‘~양’은 명령 화행 종결어의 뒤에 붙어서 확인의 의미를 지니는 단언과 질문 행위의 독립어로 해석할 수 있다.

표준어와 비교할 때, 낮춤에 사용하는 ‘~응’은 제주 방언의 ‘~이’에 대응되고, 높임에는 ‘~예’가 ‘~양’에 유사하게 대응된다. 그러나 제주 방언의 ‘~이’와 ‘~양’이 단언 행위와 질문 행위를 나타내는 독립어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데 비하여, 표준어의 ‘~응’과 ‘~예’는 단언 행위에는 사용되지 않고 주로 질문 행위에만 사

용되는 차이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직접적 명령 화행을 이끄는 제주 방언의 종결어를 표준어와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다음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제주 방언과 표준어의 명령 화행 종결어 비교

구분	명령형		청유형		침사 침부 낮춤		침사 침부 높임	
	제주 방언	표준어	제주 방언	표준어	제주 방언	표준어	제주 방언	표준어
낮춤 명령 화행	-라 -이시라/-어시라 -암시라/-엄시라	-(으)라 -아라/-어라	-라		~게 (~이)	(~응)		
	-아/-어 -아시어/-어시어 -임시어/ 엄시어	아/ 어 -으렴 -으려무나			~게 (~이)	(~응)	~마씀 (~양)	(~예)
	-주 -아시주/-어시주 -암시주/-엄시주	-지 -게	-주 -아시주/-어시주 -암시주/-엄시주	-자 -지	~게	(~응)	~마씀 (~양)	(~예)
	-삼 -아삼/-어삼 -암삼/-엄삼	-게 -으렴			~게	(~응)		
			-게 -아시게/-어시게 -암시게/-엄시게	-세	~게 (~이)	(~응)	~마씀 (~양)	
		-근지어디 -렸다						
높임 명령 화행	-니서 -아십서/ 이십서 -암십서/-엄십서	-(으)오 -소 -구려 -(으)소서'					~마씀 (~양) ~게	(~예)
			-니주 -아십주/-어십주 -암십주/-엄십주	-니시다			~마씀 (~양) ~세	(~예)

[표. 4]를 주목하면 제주 방언에서 직접적 명령 화행은 표준어에 비하여 그 종결어의 수가 적다. 특히 낮춤의 종결어는 큰 차이가 없으나, 높임 종결어의 경우, 제주 방언에는 주체높임 신어말어미 '-시-'의 쓰임이 없기 때문에 표준어에 비하

여 그 활용도가 현저히 뒤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높임의 명령 화행에 대한 약점을 극복하고자 종결 첨사인 ‘~마씀’과 ‘~양’을 이용하여 명령의 발화를 높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표준어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 중, 비슷한 연배와 순위, 손아래의 구분을 다양한 종결어로 표현하고 있으나, 제주 방언에서는 그 형태가 다양하지 않고 발화 상황과 어조에 의해 구분하고 있다.

2. 우회적 명령 화행

앞에서 화행 종결어의 쓰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직접적 명령 화행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직접적 명령 화행처럼 종결어의 쓰임에 따라 문형과 화행이 일정하게 나타날 때는 명령문과 명령 화행이 동일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무상 유형과 그 화행이 다르게 나타나는 발화는 통사론과 화용론의 입장이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서법이나 문장 상의 명령문을 분석하면서 종결어비의 용법만으로 문장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발화 행위의 의미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문문 형식으로 서술되었으나, 화자의 반화 의도로 보든, 청사의 반응 결과로 보든, 의문문이 아닌 명령 화행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발화는 흔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내의 발화 행위는 그 형식에 엄매임 없이 화자와 청자 사이의 발화 상황에 따라 그 화행을 분류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 열시 못하겠니?

위의 발화 행위는 화자의 의도가 청자로 하여금 '열겠느냐?' 또는 '못 열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발화 행위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발화 행위에 대한 청자의 해석 또한 문을 열고 안 열고 하는 '예', '아니오'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 발화는 화사나 청자 모두가

이 문 열어라.

하는 명령의 화행으로 발화하고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발화를 단순히 '-하겠니?'라는 의문 종결어를 고집하여 의문의 반화로 규정지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문장의 유형 분류와는 달라지겠지만, 발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화자의 발화 의도와 청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명백한 명령의 의미를 지닌 화행은 명령 화행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와 같이 화행과 문형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단편적인 예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 (1) a. 조용히 못 하겠니?
- b. 좀 조용히 할래?
- c. 시끄럽다.

위의 세 가지 화행은 '조용히 해라' 또는 '떠들지 말라'라는 명령 화행의 변형된 표현이다. 즉 (1)a나 (1)b는 의문 사실에 대한 청자의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 행위가 아니며, (1)c 역시 사실 자체를 알려주고자 하는 단언 행위가 아니다. 이와 같이 명령 행위를 단언 행위나 질문 행위로 표현하는 것은 명령의 의도를 직설하는 것보다는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의도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화행 기술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1)a와 같이 명령 문형보다는 질문 문형을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명령 의도를 강조하거나, (1)b와 같이 명령의 의도를 숨기며 완곡한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청자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게 된다. 또는 (1)c와 같이 명령의 의도를 지니면서도 표현 자체를 우회하여 단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명령 행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질문 행위나 단언 행위 가운데 명령의 의미가 명백히 드러나는 발화들을 우회적 명령 화행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1 질문 행위의 명령 화행

의문 종결어를 이용한 의문문이 명령 화행으로 발화될 때는 앞에서 예를 든 발화의 경우에 비추어 명령의 의도를 강화하고자 하거나, 완곡한 명령 의도를 나타내하고자 하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1.1 강화된 명령을 위한 질문 행위

표준어에서는 명령 표현의 강화를 위하여 ‘~못 할래?’, ‘~못 하겠습니까?’ 등의 질문 발화 행위를 사용한다. 제주 방언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제주 방언에서는 이런 ‘~못~’ 부정 질문 발화와 함께 앞에서 언급했던 ‘~양’과 ‘~이’ 종설어에 의한 질문 발화도 역시 명령의 의도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안~’ 부정 질문 발화도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1) ‘~ 못~’ 부정 질문 발화를 통해 강화된 명령을 표현한다.

- (2) a. 이 손 못 놀래? ⇒ 이 손 노라.
 (이 손 못 놓을래?) (이 손 놓아라.)
 b. 이 손 못 노쿠과? ⇒ 이 손 놓서.
 (이 손 못 놓겠어요?) (이 손 놓으세요.)

위 발화는 화자가 청자에게 손을 놓겠느냐, 놓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다. (2)a는 ‘이 손 노라.’, (2)b는 ‘이 손 놓서.’의 명령 화행과 동일하다. 그러나 질문 행위를 통해서 화자는 자신의 명령 의도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 손 노라.’보다 오히려 ‘이 손 못 놀래?’가 그 명령의 강도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2)b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2)a, (2)b의 질문 행위는 그 문형과는 달리 발화의 실제적 의도에 변화를 일으키며 화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그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화행은 명령 화행이다.

한편, ‘~못~’ 부정 질문 발화는 그 형태가 ‘-하지 못할래’와 같이 부정 보조동사로 바꾸어 발화할 경우에도 그 의미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 이 문 올지 못할래?) .
(이 문 열지 못하겠니?)
⇒ 이 문 올라.
(이 문 열어라.)

2) ‘~안~’ 부정 질문 발화를 통해 강화된 명령을 표현한다.

‘~안~’ 부정 질문 행위가 강화된 명령 화행으로 사용될 때는 발화의 상황과 어조에 차이가 드러난다.

(3) a. 밥 안 먹을타?

(밥 안 먹겠니?)

b. 밥 안 먹으쿠과?

(밥 안 먹겠어요?)

(3)a나 (3)b 둘 다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발화될 때, ‘밥 먹으라.’와 ‘밥 먹읍서.’의 명령 화행과 동일하다. 이 때 화자가 청자에게 밥을 먹는 행위에 대하여 추궁하거나 재촉하는 억양으로 발화하면 ‘~못~’ 부정 질문 발화와 마찬가지로 명령의 강도가 ‘밥 먹으라.’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간청이나 애원의 어조로 발화할 때는 오히려 ‘밥 먹으라.’보다 그 명령의 강도가 약화된다.

또한 그 형태가 ‘-흐지 아니젠?’과 같이 부정 보조동사로 바꾸어 발화할 때에도 그 발화 상황과 어조의 차이에 따라서 명령의 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3) ‘~마씀’, ‘~이’, ‘~양’의 종결어가 사용되는 발화를 통해 강화된 명령을 표현한다.

1.3.1에서 분석한 바 있는 ‘~마씀’ 종결어가 명령 화행 뒤에 붙어 질문 행위로 발화되거나, 1.3.3의 ‘~이’와 ‘~양’이 명령 화행 종결어의 뒤에 붙어서 확인의 의미를 지니는 질문 행위로 발화될 때, 명령 행위의 강화라 할 수 있다.

(4) a. 나영 혼디 집이 가주마씀? (↗)

(나와 함께 집에 가지지요?)

b. 밥 먹으라 이? (↗)

(밥 먹어라 응?)

c. 밥 먹읍서 양? (↗)

(밥 먹으세요 예?)

(4)a의 ‘~마씀’은 그 여양을 상승시킴으로 인해 질문 행위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된다. 따라서 문장 자체가 의문문이다. 그러나 화자나 청자는 이 질문 행위를 명령 화행으로 발화하고 반응한다. 또한 ‘집이 갑주’라는 정유 행위의 명령 강도보다 ‘~마씀’을 덧붙임으로 해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4)b와 (4)c 역시 ‘~이’와 ‘~양’에 의문의 기능을 부여한 질문 행위의 발화이면서, 그 화행은 명령에 해당한다. 명령의 강도 역시 ‘밥 먹으라.’나 ‘밥 먹읍서’보다 상하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질문 행위를 통하여 명령의 의도를 강화시키는 발화의 양상은 ‘-못’ 부정 질문 발화를 사용할 때와 ‘-안’ 부정 질문 발화를 사용하는 일부의 경우에 한한다고 하겠다. ‘~마씀’이나 ‘~이’와 ‘~양’ 종결어는 점사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

2.1.2 완곡한 명령을 위한 질문 행위

표준어에서는 화자의 명령 의도를 완곡히 표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의 발화 행위를 하고 있다.

‘~해 줄래?’

‘~해 주겠습니까?’

‘~해 주지 않을래?’

‘~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화자의 질문 발화에 대하여 청자가 ‘아니오,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응답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응답은 명령 발화에 대한 응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청자는 화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명령 행위에 대하여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 방언에서도 완곡한 지시나 요청, 청유를 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명령 행위 보다는 이를 우회시킨 질문 행위의 발화 행위를 흔히 사용하고 있다.

(5) 책 사젠 허난 지갑 내부러된 와져신게, 저 사름 돈 만원 이서?

(책 사려고 했더니 지갑 놔두고 왔네, 당신 돈 만원 있어?)

이 발화는 화자가 청자에게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문하는 발화가 아니라, ‘돈을 빌려 달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에둘러 질문 행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청자 역시 화자의 이 발화 내용에 대하여 질문의 행위로 반응하지 않고 명령의 행위로 받아들여 빌려주거나, 빌려주지 않거나 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돈 만원 이서?’의 발화는 ‘돈 만원 꺾 주젠?’이나, 보다 직접적인 ‘돈 만원 꺾 주라.’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완곡한 명령 화행을 위한 질문 행위에 대하여 그 명령의 강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6) a. 돈 만원 못 꺾줄타? (강화된 명령을 위한 질문 행위)

b. 돈 만원 꺾주라. (직접적 명령 행위)

c. 돈 만원 꺾주젠? (완곡한 명령을 위한 질문 행위)

(6)a는 질문 행위를 택하면서도 오히려 명령 행위인 (6)b보다 명령의 강도가 더 강하고, (6)c는 (6)b보다 오히려 명령의 강도가 약하다. 이와 같이 완곡한 명령을 위한 질문 발화 행위는 명령의 강도에 있어서 가장 낮은 발화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문 행위를 통하여 명령의 의도를 강화시키는 발화의 양상은 ‘~못~’ 부정 질문 발화를 사용하는 명령 화행 전부와 ‘~안~’ 부정 질문 발화를 사용하는 명령 화행 중 일부의 경우로 제한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질문 행위를 통하여 명령의 의도를 완곡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명령 화행은 비교적 제한 없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1) 일반적인 질문 행위를 완곡한 명령 화행으로 우회시켜 표현한다.

명령 행위로 표현해도 무방한데 우회적인 질문 행위로 발화함으로써 명령의 강도를 약화시키게 된다.

(7) a. 하영 놀아시난 이제랑 그만 집이 살나?

(많이 놀았으니 이제는 그만 집에 가겠나?)

경 구진 물에 서납호염수광?

(그렇게 더러운 물에 빨래하고 있습니까?)

b. 나 홉꿈만 주젠?

(나 조금만 줄래?)

c. 우리 이제 밥 먹으카?

(우리 이제 밥 먹을까?)

(7)a는 '집에 가라.'의 지시 행위이고, '빨래하지 말라.'는 금지의 지시 행위이다. (7)b는 '조금 달라.'는 요청의 행위요, (7)c는 '밥 먹자.'는 청유의 행위로서 모두 명령 화행에 해당한다.

2) 보조동사 '- 주다'의 질문 행위를 이용하여 완곡한 명령 화행으로 표현한다.

이 때는 화자가 중심이 되는 요청의 명령 화행, 또는 청유의 명령 화행으로만 나타나고, 청자 중심의 지시 명령 화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8) a. 우리 아기 봐주젠?

(우리 아기 보아 줄래?)

b. 우리 아방신디 혼디 가 주쿠편?

(우리 아버지한테 함께 가 주겠습니까?)

(8)a는 '우리 아기 보라.'의 요청 행위를 완곡하게 표현한 '봐 주라.'에서 더 나아가 질문 행위 '봐 주젠?'으로 간곡하게 표현한 명령 화행이며, (8)b 역시 '우리 아

방신디 혼디 가게.'라는 청유의 행위를 같은 방법에 의해 표현한 명령 화행이다.

3) 부정 질문 행위를 통하여 완곡한 명령 화행으로 나타낸다.

부정 질문 행위는 반어적 방법으로서 직접적인 명령의 효과를 완화시키면서 청자로 하여금 가급적 화자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9) a. 술 족으마니 먹지 아니젠?

(술 자그마니 먹지 않을래?)

b. 혼저 안 오쿠광?

(빨리 안 오겠습니까?)

c. 나영 궂지 안 갈다?

(나랑 같이 안 가겠니?)

(9)a는 '술 먹지 말라.'의 금지 지시 행위에 대하여 부정의 질문으로 우회하여 표현한 명령 화행이고, (9)b 또한 '혼저 오라.'의 요청 행위, (9)c는 '나영 궂지 가게.'의 청유 행위에 대한 명령 화행에 해당한다.

4) 특정의 부사어를 사용한 질문 행위를 완곡한 명령 화행으로 나타낸다.

이 경우는 명령 화행에 해당하는 뚜렷한 발화 상황이 요구된다. 즉 특정의 부사어는 발화 상황에 따라 관용적으로 쓰이는 어휘일 뿐, 그 자체의 특정한 의미를 담지 않는다.

(10) a. 무사 딱렴디?

(왜 때리니?)

b. 어디레 베렴시니?

(어딜 보고 있니?)

(10)a는 '뜨리지 말라'의 금지 지시 행위인데, 사용된 부사어 '무사'는 관용적 발

화이지, '왜?'라는 이유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10)b의 '어디' 역시 '무사'와 마찬가지로 의미 및 기능을 가지며, '다른 디 베리지 말라.'라는 지시의 명령 화행이라 하겠다.

5) 청유형 종결어를 그대로 실문 행위로 대응함으로써 완곡한 명령 화행으로 나타낸다.

제주 방언의 '-게'는 내림 억양일 경우 청유형 종결어로, 올림 억양일 때는 의문형 종결어로 쓰인다. '-주'는 내림 억양일 경우 평서형 또는 청유형 종결어로, 올림 억양일 때는 의문형 종결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의 억양은 질문 행위이기 때문에 올림 억양에 해당된다.

(11) a. 이녀도 가게?

(당신도 가지?)

b. 우리 집이 가주?

(우리 집에 가지?)

(11)a의 발화는 내림 억양인 청유의 명령 화행 '이녀도 가게\.'를 올림 억양화시켜 표현한 것으로 청자의 청유 의향을 묻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보다 완곡한 명령 화행이 되고 있다. (11)b 역시 동일한 발화에 해당한다.

6) 명령 발화의 내용과 직결되지 않는 상황을 질문하여 명령을 완곡하게 우회시킨다.

위의 다른 유형들이 명령 행위를 단순히 질문 행위로 우회하여 표현한 데 비하여 이 유형은 명령 발화의 상황에 대한 원인을 지적하여 질문의 행위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명령의 의미를 완곡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발화도 앞의 4)항에서 언급한 특성 부사어를 사용한 의문 행위와 마찬가지로 관용적 부사어를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12) a. 구들에 이거 무신 몬지고?

(방안에 이것 무슨 먼지냐?)

b. 어떻게 연 씨레기통이 이추록 가득아시니?

(어떻게 해서 쓰레기통이 이처럼 가득했느냐?)

(12)a의 직접적 명령 화행은 ‘몬지 썰라.’, (12)b는 ‘씨레기 치우라.’이다. 1) ~ 5)의 화행과는 그 우회적 표현 방법이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둘 다 직접적 명령 행위의 원인을 의문의 행위로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명령 행위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화자나 상대자인 청자는 모두 결과적 행위인 지시의 명령 화행으로 발화하고 반응하게 된다.

7) 위의 유형을 혼합 사용하여 완곡한 명령을 나타낸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우회적 명령 화행이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청자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고 보다 완곡하게 명령 발화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들을 서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3) a. 문 올라.

(문 열어라.)

b. 문 훑쓸 올라주지 아니젠?

(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13)a는 직접적인 명령 화행이고, (13)b는 우회적 명령 화행이다. (13)a의 화행을 보다 완곡하게 하기 위하여 (13)b에서는 ‘훑쓸’이라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공손함을 드러냈고, ‘올라주지’와 ‘아니젠?’의 보조동사와 부정 질문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13)b는 (13)a의 직접적 명령 화행에 대하여 완곡함을 극대화한 우회적 명령 화행이 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발화는 명령 행위가 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질문 행위를 통한 명령 화행으로 처리함으로써 화자와 청자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자 하는 완곡한 발화 기술의 하나이다. 이런 발화의 방법은 방언적 특성이 별로 뚜렷하지 않아 표준어나 제주 방언이 비슷하다. 단 ‘~마씀’, ‘~이’, ‘~양’ 종결어의 쓰임이 제주 방언의 독특한 성격을 나타낼 뿐, 오히려 완곡하게 명령의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표준어에 비하여 미흡한 편이다.

2.2 단언 행위의 명령 화행

발화 형태를 질문 행위로 교체하여 명령의 의미를 전달하는 화행을 앞서 살펴 보았다. 그런데 그에 비교하여 많지는 않으나 단언 행위를 통하여 명령 화행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시끄럽다.’

이 문장은 그 형태로 보아 분명한 평서문이요, 서법으로 보았을 때도 역시 평서법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그러나 발화 행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발화는 화자가 청자에게 ‘시끄럽다’라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발화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청자에게 ‘떠들지 말라’하는 지시의 명령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발화를 단언 화행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단언 행위의 발화라 할지라도 화자의 발화 목적이 명백한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 명령 화행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명백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발화의 목적은 그에 타당한 반화적 상황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화행은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청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화자가 단언함으로써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발화 행위요, 둘째는 청자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을 단언함으로써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발화 행위이다. 따라서 후자는 정보 전달이라는 발화 의미가 첨가되기 때문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명령의 성격이 보다 뚜렷하다.

그런데 이처럼 단언 행위를 통한 명령 화행은 앞서 언급한 질문 행위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방언적 특성이 뚜렷하지 않다.

2.2.1 청자 認知 사실을 제시하는 단언 행위의 명령 대응

청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단언 행위를 명령의 의미로 발화하면 사실 자체의 정보 제공이나 확인 등의 뜻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명령적 성격이 뚜렷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발화 내용을 청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 모두가 단언 행위 자체는 의미가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화자와 청자는 그 행위의 의미를 명령으로 발화하고 반응한다는 조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14) 말이 너무하다.

(말이 너무 많다.)

(14)의 발화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말을 많이 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그만 말해라’, ‘말 좀 적게 하라’는 명령의 의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청자 역시 자신이 말 많음을 인지하고 있다. 설사 인지하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그러한 지적을 받고는 말을 그만 하라는 명령의 의미로 받아들여 반응하게 된다.

(14)를 질문 행위로 바꾸어 그 명령의 강도를 생각해 보자.

(15) 말이 너무 하지 아니여?

(말이 너무 많지 않아?)

(15)도 화자나 청자 모두 질문 행위의 발화가 아니라, 명령의 의미인 금지나 지시의 행위로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 명령의 강도 또한 (14)의 단언 행위의 발화보다는 다소 강하게 나타난다.

이 차 너무 뻘르다. (이 차 너무 빠르다.)

⇒ 촌촌이 밀리. (천천히 몰아라.)

2.2.2 청자未認知 사실을 제시하는 단언 행위의 명령 대응

청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을 화자가 알려 주는 단언 행위 중, 정보 제공의 단언적 의미와 함께 명령의 의미를 표현할 때는 화자와 청자의 의도와 반응에 따라 그 화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화자가 명령의 행위로 발화하지만 청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발화로 받아들이는 단언 행위와, 둘 다 명령의 행위로 발화하고 반응하는 단언 행위이다. 이 중, 후자는 명령 화행으로서 문제가 없으나, 전자는 청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용을 알려 주는 단언 행위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 명령적 성격에 다소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종류의 발화가 명령 화행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 모두가 그 발화 상황에 대하여 정보 제공과 함께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공통적 인식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16) a. 밥 다 출렸저.

(밥 다 차렸어.)

b. 밥 다 쫄러시난 왕 먹으라.

(밥 다 차렸으니 와서 먹어라.)

(16)a는 화자가 청자에게 ‘밥상을 다 차렸다.’라는 사실을 정보 제공의 단언 행위를 통해서 신재는 (16)b와 같이 ‘밥 먹어라.’ 하는 지시의 명령 행위로 발화하고 있다. 또한 청자 역시 단언 사실을 통하여 정보 제공을 받으면서 (16)a의 발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17) a. 예, 알아수다.

(예, 알았어요.)

b. 흥쌌만 이십서.

(조급만 계세요.)

(17)a는 ‘밥을 다 차렸다’는 단언 화행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밥 먹어라’ 하는 명령 화행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요, (17)b는 역시 명령 화행에 대해 유보적인 부정 반응이다.

그런데 이 발화 상황은 화자가 차려 준 식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 3자가 차려 놓은 식사를 화자가 청자에게 알려주는 발화 상황에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단언 화행으로 발화하거나 반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발화 상황은 명령 의미의 공통적 인식이라는 조건을 어기기 때문에 명령 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 화행은 아래의 (18)과 같이 단언 행위의 발화 뒤에 나와야 할 명령의 발화를 생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8) a. 씨레기통 ㄴ득았저. (쓰레기통 가득 찼어.)

⇒ 씨레기통 ㄴ득아시메 치우라. (쓰레기통 가득 찼으니까 치워라.)

b. 도둑이여! (도둑이야!)

⇒ 도둑이난 심으라. (도둑이니 잡아라.)

c. 옷 빨거 내여 뇌수다. (옷 빨 것 내놨어요.)

⇒ 옷 빨거 내여 뇌시난 빨아줍서. (옷 빨 것 내놨으니 빨아주세요.)

2.2.3 認知 사실 여부에 상관없는 단언 행위의 명령 대응

위 2.2.1과 2.2.2의 유형과는 달리 인지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단언 행위를 통하여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19) a. 차 타쟁 호민 츠레로 사사 호여.

(차 타려 하면 차레로 서야 해.)

⇒ a'. 츠레로 상 차 타라.

(차레로 서서 차 타라.)

b. 니랑 그만 자시민 조키여.

(너는 그만 잤으면 좋겠어.)

> b'. 니랑 그만 자라.

(너는 그만 사거라.)

c. 어이구 착하다. 우리 아길 약도 잘먹어.

(아이구 착하다. 우리 아기는 약도 잘 먹어.)

⇒ c', 아기야, 약 먹으라.

(아가야, 약 먹어라.)

(19)a, (19)b, (19)c는 (19)a', (19)b', (19)c'와 같은 명령의 행위를 단언의 우회적 행위로 바꾸어 표현한 예이다. 명령의 발화를 위하여 '-히려'(-해야 한다), '-히려사주'(-해야 하지)와 같은 당위성의 종결어를 사용하거나 '허여시민 조키여'(-했으면 좋겠다), '-히려시민 히여'(-했으면 해) 등 원망(願望)의 종결어를 사용함으로써 명령의 의미를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화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청자의 행동을 추켜세움으로써 완곡한 명령을 유도하는 방법 등의 발화가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단언 행위를 이용한 명령 화행은 그 명령의 강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난다. 그것은 명령의 의도를 감추거나 우회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화자의 명령 내우를 가급적 약화시키게 되고, 이를 통하여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보다 부드럽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제주 방언에서의 우회적 명령 화행은 표준어와 비교할 때 방언지 특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우회적 명령 화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언어의 형태적 성격에 있지 않고, 화자의 발화 의도와 청자의 반응에 그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 방언이나 표준어나 그 발화적 상황과 명령적 성격은 서로 다르지 않다.

IV. 결론

명령문은 종결어미의 형태를 통하여 그 유형이 채택되었으나, 화용론적 측면에서 볼 때 발화 상황의 의미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통사론적 문법에서 명령문은 다른 문형에 비하여 종결어미의 수가 적고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종결어미의 형태를 통한 명령문 분류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사론적 측면에서의 명령문과 화용론적 측면에서의 명령 화행에 대한 괴리를 해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첫째, 명령 화행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설정한 다음, 분류 기준을 추출하여 명령 화행을 분류하였다.

1. 국어의 명령문은 종결어미의 형태적 특성에 따라 명령적 의미를 나타내는 문형을 뜻하고 있으나, 화자의 발화 의도로 보아 분명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형에 대한 해석이 명확성을 잃게 된다. 이와 같은 발화 행위의 의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문형에 관계없이 화자의 명령 의도가 분명한 발화 행위를 명령 화행이라 한다.

2. 국어 문형을 일반적으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를 화행적 측면에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의 세 가지 유형으로 통합한 다음, Austin과 G. Leech 등의 의미 화용론을 토대로 평서문 - 단언 화행, 의문문 - 질문 화행, 명령문 - 명령 화행으로 문형을 화행에 대응하여 분석하였다. 제주 방언의 문형과 화행 역시 표준어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표준어와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3. 명령 화행을 결정짓는 화수 행위의 기능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명령, 요구, 허가, 요청, 간청, 제의 등 다양하게 나타나나, 이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화수 행위의 분류 기준을 화자의 발화에 따른 청자의 반응이 화자와 청자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두었다. 이 기준에 따라 청자의 반응이 화자에게 공급되는 요청 행위와 청자의 반응이 청자에게 국한하는 지시 행위, 청자의 반응이

화자와 청사 모두에게 과급되는 정유 행위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4. 명령 화행은 그 화수 행위의 직접성 여부에 따라 직접적 명령 화행과 우회적 명령 화행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직접적 명령 화행은 문법적 명령문과 정유문에 내용하는 화행으로서 명령형 종결어미의 통사적 특성과 함께, 명확한 명령 의미의 반화를 그 조건으로 하였다. 우회적 명령 화행은 단언 화행과 질문 화행 중, 명령으로 표현해야 할 화수 행위를 교제 활용한 문형으로 그 조건을 삼았다.

둘째, 명령 행위의 직접성 여부에 따라 분류한 직접적 명령 화행과 우회적 명령 화행의 예시 반화를 제주 방언에서 추출하여 적용, 분석, 검증하였다.

1. 직접적 명령 화행은 명령문, 청유문과 대응하기 때문에 제주 방언에서도 명령형 종결어와 정유형 종결어 및 형태소 접미 종결어에 의해 나타난다.

1.1 명령 화행을 나타내는 명령의 종결어는 ‘-라’, ‘-아/-어’, ‘-주’, ‘-십’, ‘-니서’의 명령형 종결어미로 나타나며, 이들은 지시 및 요청의 명령 화행을 이끈다. 그 명령 강도를 강한 순서부터 보면, 일반적으로 올림 단언 억양의 ‘아/-어’ 종결어, ‘라’ 종결어, 오르내림 억양의 ‘-아/-어’ 종결어, ‘주’ 종결어의 순으로 나타난다. ‘십’을 종결어로 사용할 경우는 그 억양이나 발화 상황에 비추어 강하거나 약하게 나타나나, 일반적으로 ‘주’ 종결어의 명령 강도와 비슷하다. 또한 청자가 뒷사람일 때 쓰이는 ‘-니서’ 종결어는 발화 상황에 따라서 명령의 강도가 다양하게 드러난다.

1.2 명령 화행으로 나타나는 청유형 종결어미는 ‘-게’, ‘-주’, ‘-라’, ‘-니주’의 네 가지가 있다. 이는 정유 행위의 명령 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령형 종결어미들 통한 명령 화행보다는 명령의 강도가 약하다. ‘-게’ 종결어를 사용하면 ‘-주’ 종결어에 비하여 명령의 강도가 높다. ‘-라’에는 오직 ‘군라’ 한 형태만 나타나며 명령의 강도는 ‘-게’ 종결어에 가깝다. 청자가 뒷사람일 때는 ‘-니주’ 종결어를 쓰고 있다.

1.3 명령 화행을 나타내는 명령 종결 접사로 ‘~마씀’, ‘~게’, ‘~이’, ‘~양’이 있다. 이 중, ‘~마씀’과 ‘~게’는 침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의문점이 없으나, ‘~이’

와 ‘~양’은 첨사로서의 기능과 역할보다는 문장 축약의 대응 형태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마씀’과 ‘~게’의 다양한 활용과 독특한 의미 표현은 제주 방언의 명령 화행에 두드러진 특징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시킬수 있는 표준어의 명령 종결 첨사가 뚜렷하지 않다.

2. 우회적 명령 화행은 단언 행위와 질문 행위를 통하여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화행으로서 화자의 발화 의도와 청자의 반응이 명백히 명령의 의미를 지닐 때에 한한다. 따라서 발화 상황이 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2.1 질문 행위가 명령 화행으로 발화되는 경우는 발화 상황과 방법에 따라 명령의 의도를 강화하거나, 완곡한 명령 의도를 나타낸다. 강화된 명령 표현을 위하여 ‘~못~’ 부정 질문 발화와 함께 ‘~양’과 ‘~이’ 종결어에 의한 질문 발화를 사용하며, ‘~안~’ 부정 질문 발화도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완곡한 명령을 위한 질문 발화 행위는 1) 일반적인 질문 행위, 2) 보조동사 ‘~주다’의 질문 행위, 3) 부정 질문 행위, 4) 특정의 부사어를 사용한 질문 행위, 5) 청유형 종결어를 상승 억양으로 발화한 질문 행위, 6) 명령 발화의 내용과 직결되지 않는 상황의 의문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질문 행위의 우회적 명령 화행은 제주 방언과 표준어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완곡한 명령 표현 방법이 표준어에 비하여 미흡하다.

2.2 단언 행위를 통하여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화행은 그에 타당한 발화적 상황을 필수 조건으로 하게 된다. 이 화행은 청자의 인지 사실 여부에 따라 명령적 성격을 달리 한다. 또한 인지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단언 행위를 통하여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단언 행위를 통한 명령 화행 역시 제주 방언과 표준어의 차이가 없다.

셋째,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을 시사한다.

1. 명령 화행은 통사론의 명령문 이외에 청유문, 의문문, 평서문에까지 그 범주를 확대 해석해야 한다.

2. 제주 방언의 명령 화행은 직접적 명령 화행에서 표준어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다. 이는 종격어미의 통사적 성격에 기인한다. 특히 종결 접사를 통한 명령 화행은 뚜렷한 방언적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우회적 명령 화행에서는 방언적 특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3. 명령 행위를 화용론의 입장에서 해석함으로써 다음의 전망을 예상할 수 있다.

제주 방언을 적용한 명령 화행의 범주와 유형은 표준어의 화행 연구에도 적용 가능하다.

단언 행위와 질문 행위가 명령 화행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교체' 현상을 화행진체로 확대하여 연구함으로써 문형과 발화 상황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고, 문상 중심의 형식적 문법론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발화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문형을 화행의 입장으로 바꾸어 분석하는 것은 문자 표현의 이면에 숨어 있는 화자와 청자의 심리 상태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사회적 상황 등 언어 외적인 상황까지도 문형 연구의 주요한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말과 글의 표현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한국 문헌

<자료>

- 박용후(1988), 「제주 방언 연구. 고찰편」, 과학사.
_____(1988), 「제주 방언 연구. 자료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濟州道, 濟州大學校 博物館 編(1995), 「濟州語辭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1995), 「한국방언자료집Ⅸ」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 연구(자료편)」, 태학사.

<단행본>

- 강범모 외(1999), 「형식 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한신문화사.
고창운(1995), 「서술씨끝의 문법과 의미」, 박이정.
김민수(1975), 「국어문법론」, 일조각.
김종택(1982), 「국어화용론」, 형설출판사.
김태곤 외(1998), 「한국어의 역사」, 대한교과서.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남기심·고영근(1999), 「표준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박용후(1960), 「제주방언연구」, 동원사.
성낙수(1992),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이상규(1996), 「방언연구방법론」, 형설출판사.
이승녕(1985),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 연구총서 5>, 탑출판사.
이익섭(1996), 「방언학」, 민음사.
이장송(1999), 「담화표상이론」, 한국문화사.
이희승(1970), 「새 문법」, 일조각.
임지룡(1981),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장석진(1997), 「통합문법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전영우(1995), 「국어화법론」, 집문당.
 정희사(1999), 「담화와 문법」, 한신문화사.
 최현배(1971), 「우리말본」 네 번째 고침 여담, 정음사.
 한 길(1991), 「국어종설어미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허 웅(1976), 「언어학개론」, 정음사.

<논문>

고성환(1996), “현대국어 명령문에 대한 의미, 화용분석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영근(1973), “현대 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9-2.
 권재일(1993), “「우리말본」의 월간,” 「새국어생활」 3 3호, 국립국어연구원.
 김미경(1987), “濟州道 方言의 疑問法 研究,”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석득(1966), “V류 어의 내부 구성 요소 분석,” 「인문과학」 14·15권, 연세대학교.
 김영돈(1956-1957), “제주 방언의 어미 활용 I, II, III,” 「한글」 119, 121, 122호, 한글학회.
 김지홍(1983), “제주 방언의 동사구 보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
 노대규(1982), “국어의 김탄분 문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영준(1992), “국어 명령문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홍철(1990), “話用的 直示體系에 의한 Master와 Brock 談話의 比較分析,”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양택선(1984), “국어의 명령법에 대한 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유송영(1997), “국어 청사 대우 어미의 교체사용(switching)과 청자 대우법 체계,”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징영진(1983), “제주 방언의 종결어미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최학규(1989), “제주 방언의 서법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현평효(1974),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_____(1977), “제주도 방언의 명령법 어미,” 「성봉 김성배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형설출판사.

_____ (1991), “제주도 방언 존대법의 특징,” 『새국어생활』 1-3호, 국립국어연구원.

홍종립 (1991), “濟州 方言의 樣態와 相範疇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 외국 문헌

<번역서>

Austin, John L(197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김영진 역(1992), 서광사.

Courtés, Joseph(1980), Introduction à LA SÉMIOTIQUE NARRATIVE ET DISCOURSIVE, 오원교 역(1992), 신아사.

Mey, Jacob L(1993), Pragmatics, 이성범 역(1996), 한신문화사.

Sanders, Carol(1979), Cours de Linguistique Generale de Saussure, 김현권 역(1996), 어문
학사.

<Abstract>

A Study On Imperative Speech Acts In Cheju Dialect

Kang Nam-Gook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Gon

According to the usage of sentence ender, some sorts of declarative sentences and interrogative sentences appear as imperative speech act in practical speech. To solve some difficulties on speech act, I took a goal to categorize the general patterns of imperative speech act based on the pragmatics.

In the second chapter, you can see the proper patterns of imperative ends from the syntax based on traditional grammar. Contrasting imperative sentences to its sentence ender of Cheju dialect, I analysed some shown instances that is the basis of this study. From the viewpoint of pragmatics, I combined declaratives, interrogatives, and imperatives (included propositives) as general sentence type of Korean language.

From John L. Austin, J. R. Searle and others' linguistic philosophy and their speech act theory, I cope declarative sentence, assert speech act, question or interrogative speech act imperative sentence and imperative speech act with type of speech acts. As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Korean standard and Cheju dialect, the correspondence of sentence type to speech act has th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same fruit.

Then three standards are followed by decisions on imperative speech act. They are: illocutionary act, request act, directive act, and propositive act.

Chapter III shows you the difference of practical matter and circumstances between Cheju dialect and the Korean standard daily talks. In that, I could divided syntax patterns into two: They are imperative direct speech act and imperative roundabout utterance approach through being illocutionary act or not of the meanings in imperatives.

Imperative direct speech faces to grammatical imperatives and propositive act, then the important term of utterance during speech-interaction should be characterized as syntax imperative ender and correct meaningful, imperative speech act.

One specific condition on imperative indirect speech act or imperative roundabout utterance is a transformed patterns ought to be used as imperative- illocutionary act. So it was divided into two. The one is imperative roundabout utterance of question form and the other is assertive- imperative roundabout utterance form. In the study, I analysed that questions for imperative roundabout utterance is to be expressed in highly enforced question form and those for euphemism each. And assertive- imperative roundabout utterance has to analysed with the listener's comprehension ability.

In Cheju dialect, there are little polite words for the elder in imperative speech act, contrasting to the Korean standard language. Thus an outstanding feature can be shown with additional word ender. There is no specific difference in imperative roundabout utterance between Cheju-isalnd's dialect and that of standard Korean. On the other hand, I could find lots of imperative speech act patterns through questions, contrasting to assertive- imperative roundabout utterance.

Especially, imperatives means to control to the listener's behavior

accordingly the imperative order, so imperative roundabout utterance is more often used than any other form of imperatives in the dialect.

Therefore we can solve the problems on general forms and patterns of speech acts through some sort of study. Consequently we can set up useful, practical utterance forms something unique in the Cheju dialect without anything worse effect from grammatical fallacy.